Weekly
공감
2011.06.22 NO.114
gonggam.korea.kr
세계경제 한발 뛸때
한국경제 두발 성큼 P25~41
3代 걸쳐 11명 모두 현역복무… 공정병역 실현 P16~23
"창작물 불법복제 꼼짝마!"… 저작권경찰의 24시 P42~43

당신은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계를 만나고 나라에 봉사하며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해외봉사단에 자원했지만
제가 얻은 것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과 지혜를 몸소 느끼며,
그렇게 영원히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지만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일'
이것이 바로 해외봉사활동 입니다.

"여러분도 미래의 대한민국 대사 입니다."

現 주한미국대사 Kathleen Stephens (심은경)
1975~1977 충남 예산군에서 미국 평화봉사단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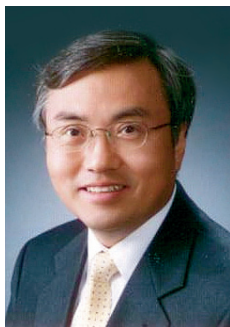
평화봉사단(Peace Corps)은 1961년 3월 창립되어
2011년 올해 50주년이 되었습니다.

한국해외봉사단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나누면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지원자격 만 20세 ~ 62세 대한민국 국민
파견국가 아시아 / 아프리카 / 중남미 / CIS 지역
파견분야 교육 / 보건의료 / 산업에너지 / 농촌개발 / 정보통신 / 환경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KOICA 홈페이지(kov.koica.go.kr) 또는 안내번호(1588-0434) 참조

경제성과, 결코 자만해선 안 된다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신청하고, 메릴린치가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인수되며, 미국 최대 보험회사 AIG에 8백5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금융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된 2008년 9월 15일 이후 전 세계는 급속하게 침체국면으로 진입했다. 이후 세계 각국은 위기에 '선제적(preemptive)이고, 확실하며(decisive)하며, 충분하게(sufficient)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위기 극복에 전력을 쏟았다. 그 결과 세계 경제는 4퍼센트대 성장을 회복했지만 선진국들은 여전히 위기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경기대응책에 힘입어 2009년 0.3퍼센트의 플러스 성장을 이루고 작년에는 6.2퍼센트 성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과를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양호하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009년에 플러스 성장을 한 나라는 우리나라, 호주, 폴란드뿐이다. 이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신흥경제국들이나 아시아 경쟁국들과 비교하면 평가가 달라진다. 신흥경제국들은 2009년 2.7퍼센트 성장했으며, 2010년에는 7.3퍼센트로 성장세가 크게 확대됐다. 올해도 6퍼센트대 성장이 예상된다. 신흥경제국들의 성장세가 양호한 것은 중국과 인도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힘입어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5개국은 2009년 1.7퍼센트 성장했고, 2010년에는 6.9퍼센트 성장했으며, 올해도 5퍼센트대 성장이 예상된다.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선진국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경쟁국인 싱가포르, 대만, 홍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만 보기 어렵다. 물론 성장률만으로 경제성과를 비교할 수 없다. 하지만 각국이 경기회복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성장률은 경제성과를 비교하는 주요 지표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출주도 성장을 하는 경쟁국인 싱가포르, 대만, 홍콩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경제성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만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2009년 적극적인 경기대응책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을 할 수 있었으나 이들 경쟁국은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 경쟁국들은 중국과의 교역확대에 힘입어 우리나라보다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였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성과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양호하다고 하겠으나 신흥경제국들에 비하면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경제위기를 극복했으나 경쟁국이나 신흥경제국과 비교하면 다소 미흡하다.

물론 경제성장률만으로 경제성과를 비교할 수는 없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물가상승률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경제성장률을 높이려고 내수를 확대하면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정책당국은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런 만큼 경제성장률은 각국의 경제성과를 비교하는 가장 주요한 지표라고 하겠다. G

Contents

NO.114 2011.06.22 통권 215호

25

기획특집

한국경제 글로벌 기준으론 "Not Bad"

잘 해냈다. 지난 3년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성장을 이뤄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 경제의 저력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하지만 위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금융위기는 새로운 과제를 우리 경제에게 부여했다. 물가안정과 일자리창출이 그것이다. 경제위기라는 거대한 파도를 두 번이나 넘은 우리 경제다. 힘도 있고 경험도 있다. 지혜를 모으고 뜻을 뭉치면 물가를 잡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한 발걸음은 이미 시작됐다.

표지 이야기 낡은 단독주택가에 색색의 벽화가 덧입혀졌다. 한층 밝아진 골목길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얼굴도 덩달아 환해졌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문화가 공존하는 벽화거리'는 주민들의 봉사로 일구어낸 예술작이다. 사진 · 한준호 기자

위클리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1.06.22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정병국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타라티피에스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mcst.go.kr KOR 문화체육관광부

06

18

54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6월 23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를 읽고]

퇴직공직자의 재능기부 보며 희망 느껴

"이번 기획특집 '공정사회 걸림돌 전관예우는 없다'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꼭 풀어야 하는 숙제로 느껴졌습니다. 그 숙제를 풀고자 현 정부가 공직사회에 대한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년원에서 연극 봉사로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고 계신 유인촌 전 장관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수애 (광주시 서구 양동)

간단한 여름철 에너지 절약법 매우 유용

"여름철 에너지 절약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늘어나는 전기요금 때문에 부담스러웠는데 이렇게 알뜰하게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에어콘과 선풍기 함께 사용하기,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전원끄기, 넥타이를 풀고 커튼을 치기 등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생활정보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올여름에는 에너지절약법을 실천해 알뜰하고 건강하게 보내야겠습니다."

최용범 (경기도 시흥시 도창동)

새로운 국민 여동생 손연재 파이팅!

"김연아의 뒤를 이어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가 새로운 국민 여동생으로 떠올랐습니다. '위클리 피플-손연재' 기사를 보니, 손연재는 얼굴도 예쁘지만 세계 정상급 기량을 가진 체조선수로 거듭나기 위해 하루 7시간씩 맹훈련을 소화해 내고 있더군요. 2012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꿈꾸는 손연재의 소망은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꼭 이뤄질 거라 생각합니다. 손연재 선수, 파이팅!"

이덕희 (경북 청송군 진보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

"어린 시절 집에서 나전칠기 모양의 장롱을 보며 '정말 촌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정말 세련된 모양인데 어린 시절에는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전칠기 장인 손대현씨 기사를 보며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를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껴야 세계인에게도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처럼 우리 문화를 우리 스스로가 사랑해야겠습니다."

김준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출산장려버스 '맘이 좋은 방' 더욱 확대됐으면

"요즘 저출산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예비맘과 워킹맘을 위한 전용버스인 '맘이 좋은 방'이 등장했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임산부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도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다니, 참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널리 홍보가 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널리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대욱 (경남 양산시 소주회야로)

이 기사, 아쉬워요

"시니어 해외봉사 참여방법 알고 싶어요"

시니어봉사단원 최남희씨 기사가 신선했습니다. 해외봉사는 젊은이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시니어봉사단원이 해외봉사를 떠난다는 기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르완다 외의 시니어 해외봉사 지역과 봉사기간, 그리고 해외봉사에 관심 있는 시니어들이 참여하는 방법 등을 좀 더 상세하게 알려주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전흥진 (프리랜서,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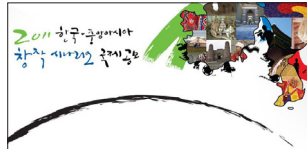
"출산장려버스 공동주택 밀집지역에도 있었으면"

출산장려버스는 직장을 다니는 임산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왕 출산장려를 위한 취지라면 사무실 밀집지역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밀집지역에서도 시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또한 서울시내 사무실 밀집지역에 시동을 켠 채 장시간 정차 시 교통체증을 일으키지 않을까요.

신지영 (회사원,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알립니다

창작 시나리오를 국제공모합니다

한국–중앙아시아 스토리텔링위원회는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의 신화, 민담, 영웅서사시를 창의적인 시각으로 새롭게 발굴하기 위한 '2011 한국–중앙아시아 창작 시나리오 국제공모전'을 개최한다.

접수 마감 | 9월 2일
제출 형식 | ① 트리트먼트(영화, 드라마, 단막극, 애니메이션, 연극, 뮤지컬, 게임)
② 시나리오(장편소설, 영화, 단막극, 드라마, 애니메이션, 연극, 뮤지컬, 게임)
공모 대상 | 국적,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단독 또는 공동출품(기업 포함) 가능
접수 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www.asiastoryroad.com)에서 접수
※응모작은 '한국어', '러시아어' 혹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지원 혜택 | 시상 외 상금 수여

한국–중앙아시아 스토리텔링위원회 사무국 김안나 ☎ 02–3704–3450

대한민국 미래의 전략 아이디어를 내주세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제2회 미래 한국 대학생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는 미래 비전과 전략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 | 8월 1일~9월 15일
논문 주제 | 2020년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과 정책제언에 관한 자유 주제
참가 대상 | 국내외 2년제 이상 대학 · 대학원 재학(휴학, 졸업예정) 중인 자
작성 방법 | A4용지 22매 내외 분량(A4용지 2매 내외의 요약본 포함)으로 논문 형식을 따름
지원 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www.miraekorea.org)에서 접수
지원 혜택 | 기획재정부 장관상 외 상금 수여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논문 공모전 운영 사무국 ☎ 02–958–4675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뽑아주세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인기투표가 한창(11월 10일까지)인 가운데 '제주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전화 투표 | 001–1588–7715, 영어 안내 음성 후 '삐' 소리가 나오면 7715(제주선정코드)를 입력한다. 전화료 약 1백40원
문자 투표 | '제주' 'jeju' 'JEJU' 중 택1 하여 문자 작성 후 001–1588–7715로 전송.

자세한 내용은 '세계 7대 자연 경관 제주 공식블로그(blog.naver.com/7wondersjeju)' 참조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www.jejun7w.com

공감퍼즐

		1			
2	3			4	
				5	6
	7	8			
9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6월 28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1. 기업체 등에서 사람을 골라서 씀. "올해 우리 회사는 지난해보다 많은 신입사원을 OO하기로 했다."
2.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남녀가 이룬 가정.
5. 재봉틀을 이렇게 불렀죠.
7. 거룩한 표라는 뜻으로, (가톨릭) 신자가 손으로 가슴에 긋는 십자가를 이르는 말. "OO를 긋다."
9. 프랑스어로 '매우 좋다'는 뜻의 말로, 1970년대 서울에 있었던 음악감상실 이름이기도 했죠. C'est si bon.

세로

1.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자주, 노랑, 분홍의 예쁜 꽃을 피우는 쇠비름과의 식물.
3.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 집 문 앞이 시장을 이루다시피 함.
4. 기계로 벼를 찧어 쌀을 만드는 것. OO소.
6. 이혼을 했거나 독신인 여성이 결혼생활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혼자 키우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죠.
8. 급여의 등급을 나타내는 단위. "그는 6급 8OO이 됐다."

〈Weekly 공감〉 112호(6월 8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혁신도시 **3** 청록파 **4** 보석 **5** 부침개 **7** 실리콘밸리
세로 **1** 혁파 **2** 시금석 **3** 청해부대 **4** 보훈 **6** 개구리

〈Weekly 공감〉 112호 '공감퍼즐' 당첨자
김희용 · 전남 여수시 광무동
서유림 · 경북 경주시 도지동
이경호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2동
정수정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동
최지현 ·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외규장각 의궤 귀환 환영 대회 행사의 하나로 마련된 이봉행렬이 6월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경복궁 근정전으로 향하고 있다.

'1백45년 만의 귀향' 외규장각 의궤 성대한 환영행사

해외문화재 환수 힘쏟는다

프랑스 외규장각 의궤가 귀국하고, 일본 조선왕실 의궤가 곧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우리 문화재에 대한 국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가운데 대규모 외규장각 의궤 환영행사가 열렸다. 정부와 민간에서 해외에 유출된 우리 문화재를 찾아오기 위한 기구가 출범하는 등 우리 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1백45년 만의 귀향을 따뜻하게 반기는 환영연이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보관 중이던 조선왕실 외규장각 도서의 귀환을 기념하는 '외규장각 의궤 귀환 환영대회'가 지난 6월 11일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오전 강화도에서 열린 고유제(告由祭)를 시작으로 오후 경복궁에서 열린 이봉행렬, 고유제, 축하 공연 등으로 이어졌다. '고유제'란 국가나 개인의 집에서 중대한 일을 치른 뒤, 혹은 장차 치르고자 할 때 종묘나 가묘 등에 그 사유를 고(告)하는 의식이다. '이봉행렬'은 중요한 의물(儀物)을 봉안한 가마를 모시는 행렬을 말하며, 의궤를 가마에 모시는 모습을 재현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의궤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연출했다.

세종로에서 근정전까지 이어지는 가마 행렬에는 무용수 등 5백20명이 동원됐고, 근정전 앞의 고유제에서는 수제천과 오방북춤 등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졌다.

문화학술적 가치 높은 어람용 의궤 포함

환영행사에는 이명박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외규장각 의궤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다는 것을 알린 재불 역사학자 박병선 박사와 의궤 귀환에 힘을 보탠 자크 랑 전 프랑스 문화부장관, 벵상 베르제 파리7대학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환영대회에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나란히 한복을 입고 참석, "우리는 가난 속에서 살기 위해 힘써 왔다. 이제는 우리의 고유문화와 문화재를 돌봐야 할 시기를 맞이했다"며 정

부는 우리 문화재를 찾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외규장각 의궤는 지난 5월 27일 4차 귀환을 끝으로 2백97책 전체가 한국에 돌아와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로 이관됐다. 지난 4월 14일 1차분 75책 귀환을 시작으로 4월 29일 2차분 73책, 5월 12일 3차분 75책이 돌아온 바 있다.

이들 의궤는 대부분 임금이 보기 위해 특수하게 제작된 이른바 '어람용' 의궤이며, 전체 2백97책 중에는 국내에 없는 유일본 30책이 포함되어 있어 문화적·학술적 가치가 높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에 돌아온 조선왕실 의궤를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오는 7월 19일부터 9월 18일(62일간)까지 특별 전시전 '1백45년 만의 귀환—외규장각 의궤'를 개최한다. 또 외규장각 의궤를 누구나 가정에서도 편리하게 접근하여 볼 수 있도록 금년 내로 유일본(30책)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오는 2013년까지 전책(297책)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국내 전문학자로 연구팀을 구성하고 학술 심포지엄 개최, 논문집 발간 등의 연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의궤의 영인본을 제작·보존·활용에 만전을 기하고 의궤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상품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해외의 우리 문화재 20개국에 14만여 점

문화재청이 집계한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현재 20개 나라에 14만5백60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일본이 6만5천3백여 점으로 가장 많고, 미국 3만7천9백여 점, 독일 1만7백여 점, 중국 7천9백여 점, 영국 3천6백여 점 등이다.

최근 우리 문화재 환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재청은 지난 2009년 4월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문화재환수협의회'를 설립했으며, 지난 5월 25일 문화재 환수 문제를 전담하는 국외문화재팀을 신설했다. 민간단체인 '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도 6월 1일 출범했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해외반출 문화재 실태조사와 함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며 문화재 약탈 피해국 국제회의 유치와 서명 운동 등을 추진한다.

지난 4월 28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조선왕실 의궤 등 한국 도서 1천2백5책을 반환하는 '한·일 도서협정' 비준안이 통과된 것도 민간단체인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의 노력이 기반이 됐다.

혜문 스님이 중심이 돼 2006년 결성된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는 조선총독부가 일본 궁내청으로 빼돌린 왕실의궤 등의 환수 운동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8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의궤 반환을 약속한 담화로 이어져 결실을 맺게 됐다. G

글·박경아 기자

'외규장각 의궤' 존재 처음 알린 박병선 박사

"우리의 남은 의무는 '대여'란 말 없애는 것"

조선DB

"의궤가 한국에 영원히 남도록, 다시는 프랑스에 가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가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지난 6월 11일 오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브리핑룸. 외규장각 도서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린 재불(在佛) 서지학자 박병선(83)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당부했다. 이날 오후 치러진 '외규장각 도서 귀환 대국민 환영식'에 앞서 의궤 귀환에 힘쓴 양국의 주역들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다.

외규장각 도서 귀환 환영식에 맞춰 잠시 귀국한 그는 "(의궤가 한국에 돌아와) 가슴이 뭉클하고 뭐라 표현할 수 없이 기쁘다"며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이럴 때 쓰는 말일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렇게 의궤가 한국에 와서 축제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의무는 아직도 남아 있다"며 "'대여'라는 말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손에 손을 잡고 장기간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박씨는 36년 전인 1975년 프랑스 국립도서관 별관 창고에서 '파지(破紙)'로 분류된 채 먼지에 싸여 있던 외규장각 도서의 존재를 발견해 한국에 처음 알렸다. 그는 창고에서 발견한 이 도서들이 조선왕실의 행사를 그림과 함께 기록한 의궤이고, 1866년 프랑스 함대가 조선을 침공한 병인양요 때 약탈당한 문화재라는 사실을 밝혀 냈다.

외규장각 도서가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개인의 의미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1950년대 말부터 병인양요 때 가져왔던 물건이 뭔지 찾기 위해 방방곡곡을 헤맸는데 없었어요. 2차대전 때 분실됐을 거라고 단념했는데 우연히 국립도서관의 폐지 놓는 창고에서 발견하게 됐고,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알려준 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지요. 제 자신이 뭐 특별한 일을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는 고령에다 지난해 한국에서 직장암 수술을 받아 지팡이 없이는 거동조차 힘겹다. 휠체어를 타고 참석한 그는 "요즘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 대장이 보낸 공문과 그때 보도된 모든 자료, 병사들이 귀국한 뒤 쓴 논문과 보도를 종합·연구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일제강점기 때 주한 프랑스 영사관이 본국으로 보낸 외교문서를 해독해 한국의 독립운동사를 완벽하게 만들고 싶다"고 했다.

영구 귀국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 자료가 프랑스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한국에 올 수는 없다"며 "그러나 한국에 자주 와서 한국의 여러 역사가·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며 독립운동사를 완벽하게 만들고 싶다"고 했다.

글·허윤희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지난 6월 11일 'SM타운 라이브 월드 투어' 공연에서 여성 팬들이 '다시 한번 고마워'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거침없는 한류! 유럽 찍고 중남미로

SNS 전파력도 한몫… 일방적 진출 추진하면 '혐한류' 역풍 가능성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SM타운 라이브 월드투어'가 유럽 팬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마무리됐다. 이번 공연은 단순히 한국 가수들의 첫 유럽 합동 공연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유럽에 잠재된 K팝의 열기를 확인시켜 준 것은 물론 유투브,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의 힘도 실감케 했다.

지난 6월 10~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SM타운 라이브 월드투어'가 유럽 팬들의 환호 속에 마무리된 가운데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이 프랑스 현지에서 한류의 성공비결을 '문화기술(CT·Culture Technology)' 이론으로 소개했다.

SM타운 라이브 월드투어는 한국 대중음악 대한 유럽의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그동안 아시아권 진출에 주력했던 국내 음반기획사들이 유럽과 중남미 등의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같은 반향을 프랑스 유력 신문인 〈르 피가로〉와 〈르 몽드〉는 각각 '한류, 파리 제니트 공연장 강타한다' '한류, 유럽 진출'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최근 〈르 몽드〉와 영국 BBC 등의 유럽 언론들이 K팝 성공신화의 어두운 단면이라며 '노예계약' 등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상반된 견해의 기사를 잇따라 내보내, K팝의 진출이 쌍방향 문화 교류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럽 진출 가능성 엿본 시금석

국내 음악 관계자들은 'SM타운 라이브 월드투어'의 성공적인 파리 공연이 K팝의 유럽 진출 가능성을 엿보게 한 첫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중음악 평론가 임진모씨는 "유럽은 풍부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여서 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높고 다

SM엔터테인먼트

파리 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 그룹들.

SM엔터테인먼트

파리 제니트 공연장의 동방신기.

른 문화를 수용하는 데 다소 배타적인 국가들"이라며 "K팝에 대한 관심이 프랑스 전역의 열풍은 아니었지만 공항 내 소동, 공연장의 열기는 (K팝의 유럽) 진출 가능성을 점치게 한 시금석이 됐다"고 평했다.

이어 그는 "유럽을 문화 장벽이 높은 시장으로만 여긴 국내 음악계의 오랜 정신적 부담을 줄여 준 파급 효과가 있다"며 "이미 비, 보아, 원더걸스 등이 미국의 문을 두드렸듯이 프랑스, 영국도 자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우리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긍지를 갖게 된 것도 소득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언어와 인종이 다른 세계에 K팝을 확산시킨 견인차로 꼽힌 SNS의 영향력도 다시 한번 입증됐다.

지난 6월 8일 동방신기, 샤이니, 에프엑스 등 SM 가수들을 환영 나온 프랑스 팬들이 공항에서 한국어 플래카드와 태극기를 흔든 것도, 10~11일 공연장에 모여든 유럽 각국의 관객들이 한국어로 히트곡을 합창한 것도 SNS의 전파력 덕이었다.

실제 SM이 이번 공연 장면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제공한 유투브와 페이스북에서도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공연 직후 페이스북 SM타운의 '라이크(Like :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선호도 표시)' 유저수는 37만7천여명에 달했고 유투브 SM 채널의 'SM타운 파리 공연 하이라이트 영상' 조회수는 공개 이틀 만에 약 3백28만 건을 기록했다.

국내 음반기획사들도 K팝을 향한 유럽 팬들의 호응에 놀라워하며 SM의 도전에 박수를 보냈다. 또 SM의 공연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문화 현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포미닛과 비스트의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 홍승성 대표는 "SM의 공연은 K팝에 공감한 유럽 팬들을 확인한 거울이 됐다"며 "유럽 내 호응이 일시적인 반응에 그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제 업계는 미국, 유럽 작곡가와의 협업을 통해 음악 수준을 끌어올리는 등 오랜 시간 축적한 노하우를 선보일 출발점에 섰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경계할 점은 K팝의 전파가 현지 문화의 반발 없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일회성 아닌 문화 현상으로 발전시켜야

실제 SM의 파리 공연이 끝나자 유럽 언론은 K팝의 성공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꼬집었다. BBC는 K팝 성공 신화가 이른바 '노예계약'이라 불리는 장기간의 불평등 전속계약의 토대에서 일궈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2년 전 최고 인기그룹 동방신기 전 멤버와 소속사 간의 법정 소송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르 몽드〉 역시 "음악을 수출품으로 만들고자 제작사의 기획으로 길러진 소년과 소녀들이 긍정적이며 역동적인 국가 이미지를 팔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한 가요 관계자는 "K팝 가수들이 중국과 일본에서 인기를 끌자 일부에서 혐한류, 반한류가 일었다"며 "K팝 걸그룹을 성적 대상으로 등장시킨 일본 만화가 나온 것도 그 반증이다. K팝이 현지 문화의 일부로 녹아들려면 일방적인 침투가 아닌 양측의 쌍방향 교류로 이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G

글 · 이은정 (연합뉴스 문화부 기자)

백령도·연평도 등 5개 도서 방어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출범

'싸우면 이기는' 해병대, 날개 달다

백령도·연평도·대청도 등 서북 5개 도서 지역의 방어를 책임지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지난 6월 15일 정식 출범했다. 지난해 '연평도 포격' 등 북의 끊임없는 도발에 맞서 해병대사령관이 서북도서방위사령관으로서 합참의장의 작전지휘하에 작전을 수행하고 육·해·공군 요원으로 합동참모부를 편성했다.

뉴시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월 15일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식에서 유낙준 사령관에게 부대기를 전달하고 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백령도 연평도 등 서북5도서의 방위를 전담하게 된다.

과거부터 서북도서와 NLL 부근에서는 크고 작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지속되었고, 그때마다 우리 해병대는 이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도발'은 기존의 도발행위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을 상대로 한 고강도 도발행위였으며, 이는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당시 적의 연평도 도발행위를 지켜본 국민들은 전쟁에 대한 공포와 함께 한반도 내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런 와중에 당시 해병대가 보여 주었던 투혼은 국민들이 해병대에 무한한 신뢰와 성원을 보내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 속에서 고(故)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이 보여 준 살신성인의 희생정신과 철모에 불이 붙은 줄도 모르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던 임준영 병장이 보여 준 불굴의 의지는 국민들로 하여금 해병대를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육·해·공군 3D 입체작전으로 北 도발 무력화

이러한 국민들의 신뢰와 성원에 힘입어 서북도서에 대한 전력보강과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을 추진할 수 있었으며,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부대와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대하여 보다 독자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군조직법 등 법령 개정과 지휘체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서북도서는 북한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불침항모로서 적의 목줄을 겨누는 비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또한 수도권,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등 공중 및 해상교통로 측방에 위치하여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전략적 도서이다. 북한이 제1·제2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등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한 것만 봐도 그 군사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역이다.

해병대의 서북도서에 대한 전력 증강 노력은 이전부터 계속 추진

되어 왔다. 하지만 서북도서에 대한 북한의 위협 강도는 높으나 직접적인 도발 가능성은 낮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못하다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극히 일부 전력보강이 이루어졌으며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2011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서북도서 방어작전을 위해 초반에는 해병대사령부와는 별도의 합동부대 창설을 추진하다가 1월 28일 국방전략회의 시 합동작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해병대사령부를 모체로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을 결정하였으며, 해병대사령관이 서북도서방위사령관으로서 합참의장의 작전지휘하에 작전을 수행하고 육·해·공군 요원으로 합동참모부를 편성하는 방안으로 최종 확정했다.

사령부는 정보·작전·화력 기능을 보강하여 전투지휘 기능이 강화된 전투사령부로서 작전지역을 적 종심지역까지 확장하고 유사시 도발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게 된 것이다.

연평도 포격도발이 발생한 지 어느덧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연평도 북방에서는 포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또 다른 도발을 언급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들의 위협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때 새롭게 창설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해병대에게 있어서 몇 가지 의미를 시사해 준다.

첫째, 과거 서북도서는 해병대 자체능력만으로 방어했지만 이제는 적 도발에 대비하여 해·공군 전력 지원하에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이 주도하여 합동작전을 수행하도록 변화되었다. 또한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통상 지원부대 역할을 해 왔던 다른 합동부대와 달리 우리 군에 있어 육군과 공군 등 합동참모로 편성된 최초의 작전사령부라는 점이다.

다양한 감시·타격전력 배치로 방어능력 극대화

서북도서의 작전환경은 그 어느 곳보다 합동작전이 요구되는 곳이다. 미래의 전장 환경이 합동성에 기초한 전장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에 창설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는 비단 해병대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의 관심사항이며 향후 군 조직 변화의 기준이 될 것이다.

둘째, 과거 해병대사령부는 작전사로서 전투지휘 역할보다 위임된 군정기능 수행과 전시 CMCC(연합해병 구성군 사령부) 임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연합 및 합동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전투사령부로서 해병대사령부의 위상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지난 6월 15일 유낙준 사령관(왼쪽에서 3번째) 등 사령부 관계자들이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현판식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해병대사령부를 모체로 만들어졌다.

셋째, 서북도서 방위를 위해 K-9자주포와 헬기 등과 같은 다양한 감시 및 타격전력을 배치함으로써 서북도서 방어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제 해병대는 단순 의지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보완된 작전계획과 효과적이고 적시적인 합동전력 운용 등 완벽한 작전준비 태세가 구비된 가운데 만약 적이 또다시 무력도발을 감행한다면 백배 아니 천배로 되갚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작지만 강한 군대다. 1949년 해병대가 창설된 이래 6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패한 적이 없는 무적불패의 신화를 이룩한 부대이다. 지난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도발에서 보여준 용감했던 우리 해병대의 모습과 고(故) 서정우 하사 및 문광욱 일병의 희생은 또 하나의 자랑스런 해병대 역사로 기억될 것이다.

포탄이 사방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즉각 대응사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승불패의 해병대 정신과 실전적인 교육훈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 해병대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더욱 더 강인한 모습으로 거듭날 것이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합동성의 시험대가 되는 만큼 상황별로 대응개념을 구체화하고 제 작전요소를 통합하여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답은 하나다. '싸워 이기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다시 도발한다면 합동전력을 통합·운용하여 연평도 포격도발보다 더욱 강력하고 치열하게 대응하여 치명타를 입혀야 한다. 그리하여 다시는 우리의 영토를 한 치라도 넘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G

글·전황기 (해병대사령부 계획편제과장·중령)

옥상·베란다에 텃밭… 도시농업 싹튼다

2020년까지 전국 8천개소에 도시텃밭·주말농장 조성

최근 옥상농업·도시텃밭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도시농업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6월 8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그린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전국에 8천개소의 도시텃밭과 주말농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허재성 기자

서울시농업기술센터 건물 옥상에 조성된 농원으로 인근 어린이집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나왔다. 서울시는 다중이용시설 40곳에 옥상농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옥상농원은 건물 옥상을 이용해 시민들이 채소나 과일을 재배하고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이처럼 도시민이 건물 옥상이나 베란다, 텃밭 등 도시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농사를 도시농업이라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심화되면서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도시농업이 크게 늘고 있다. 독일, 영국, 일본 등에서는 도시의 일정지역을 텃밭으로 조성해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민농원이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독일의 경우 '클라인가르텐'이라 이름붙인 텃밭 1백만개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임대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가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 등 전국 46개 지자체가 주말농장, 스쿨 팜 등을 보급·지원 중이다. 2010년 기준 전국 2백47개(104헥타아르) 농장이 도시텃밭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5백만명 이상 참여 유도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심재규 과장은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도시농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도시농업은 아직 초기단계로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그린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린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은 2020년까지 도시텃밭과 주말농장 8천개소(3천 헥타아르)를 조성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퍼센트인 5백만명 이상을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시농업 참여인구는 15만3천명이다.

심재규 과장은 "도시농업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노인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기능과 함께 도심 온도를 낮추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환경적인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도시텃밭과 주말농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2020년까지 옥상, 학교부지, 공공 유휴지 등에 7천2백개의 도시텃밭을 조성한다. 텃밭의 유형도 옥상농원, 스쿨 팜, 공공형 텃밭 등으로 한층 다양해진다. 스쿨 팜은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에 교육 목적으로 조성하는 텃밭을 가리키며, 청소년 인성 함양에도 효과적이다. 이와 함께 다자녀·다세대·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공공형 텃밭도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농업공원도 지자체마다 1개 이상 만들기로

주말농장도 현재 2백개에서 2020년 8백개로 크게 늘어난다. 이로써 시민들이 한층 더 편리하게 주말농장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차장, 쉼터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농장 관리사를 배치하는 등 이용객의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국에 농사체험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시농업공원도 조성한다. 최근 개장한 인천 부평 도시농업공원은 시민들이 채소를 직접 재배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신개념의 공원이다. 정부는 이 같은 도시농업공원을 2020년까지 지자체별로 1개 이상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는 도시 빌딩도 푸르게 바뀔 예정이다. 정부는 건물옥상, 벽면, 방음벽 등에 식물을 심는 도시 빌딩 녹화를 추진한다. 빌딩 녹화는 도심 온도를 낮추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능을 한다. 여름철 콘크리트 표면 온도가 50도일 때 건물 벽면을 녹화하면 표면 온도가 26~27도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시녹화에 활용할 수 있는 식물종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더불어 공기정화 식물을 이용해 건물 실내를 쾌적하게 하는 실내녹화 기술도 보급할 계획이다.

도심 속 '식물생산 공장'도 생겨날 전망이다. 선진국에서는 도심의 고층건물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신개념의 빌딩형 식물공장이 산업화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이미 LED, 지열 등을 이용한

조선DB

최근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한 주말농장에서 부녀가 함께 상추를 수확하는 모습.

식물공장이 50여개 운영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식물생산 공장을 산업화하기 위해 LED, IT, BT 등을 활용한 첨단농업을 연구 중이다. 이미 농촌진흥청에서 LED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식물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물이 살 수 없는 남극 세종기지에서도 밀폐형 식물생산 시설을 가동해 20종의 채소를 생산·소비하고 있다.

농사정보 제공할 '도시농업 포털사이트' 구축 예정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김중현 사무관은 "LED 전구 등 인공빛을 이용한 식물 재배와 극한의 환경에서도 컨테이너를 활용한 식물 재배 등 다양한 기술이 연구 중"이라며 "도시 속 식물생산 공장은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새로운 미래산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도 구축된다. 정부는 텃밭 이용 접수와 함께 농사 요령, 기자재 구입 등 다양한 농사정보를 제공하는 '도시농업 포털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도시농업 실천과 농사 기술을 리드하는 '도시농업 전문가'도 양성한다. 정부는 시군구별 도시농업 민간전문가를 육성하고 농과계 고교·대학에 특성화 과정을 운영해 도시농업 민간 전문가 1천2백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중현 사무관은 "앞으로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면 노인들에게 건강한 소일거리가 되고 지역민들의 공동 커뮤니티의 장이 마련되는 등 도시민들의 삶이 더욱 쾌적해질 것"이라며 "더불어 도시농업과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G

글·이제남 기자

문의·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02-500-1850

강아지 캐릭터가 그려진 개조심 문구가 친근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꼭꼭 숨어라! '어린시절' 보인다

고양시에 '문화가 공존하는 벽화거리'

지난 6월 10일 경기도 고양시에 새로운 벽화거리가 탄생했다. 일명 '문화가 공존하는 벽화거리'다. 지역환경 개선을 위해 고양시가 조성한 벽화거리로 조용했던 동네가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벽화거리는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중·고등학교부터 일산1동 주민센터 옆 단독주택 골목길→천주교 일산교회→에이스10차, 11차아파트 담장으로 이어지는 2킬로미터 남짓한 구간이다. 천천히 둘러보면 30분 정도 걸린다.

벽화는 각 담장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주제로 그려졌다. 담장 벽화의 주제는 '우리들의 꿈과 희망'이다. 축구골대와 현빈, 슈퍼스타K 강승윤 등 학생들의 관심을 반영한 개성 있는 벽화가 눈길을 끈다.

이 벽화거리는 미술 전공자, 고양예고 학생 등 지역민 자원봉사자 3백50명의 참여로 이뤄졌다. G

글·이제남 기자 / 사진·한준호 기자

1 벽화 속 술래처럼 한 남자아이가 친구들을 몰래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

2 인라인을 타고 지나가던 여자아이가 축구골대가 그려진 벽화 앞에 멈춰서 있다.

3 아이들이 단독주택 벽면에 그려진 비눗방울을 잡으려는 듯 손을 뻗고 있다.

나라사랑 보금자리 1호 주택의 공사 전후 모습. 지저분하고 열악한 환경의 시골 주택이 공사 후에는 깔끔하고 살기 편한 전원주택으로 탈바꿈했다.

6·25 참전용사에 '보은의 집' 선물

육군 '나라사랑 보금자리' 제1호 준공식… 올해 사업 대상 20가구 선정

육군은 6·25 참전용사들에게 낡은 집을 새롭게 단장해 주는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 첫번째 대상으로 선정된 충남 계룡시 김관수씨는 6·25전쟁 당시 해병 이등 중사로 경기도 파주·장단지구 전투 등에 참전한 역전의 용사로 아픈 부인과 함께 어렵게 생활해 왔다. 육군은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무를 이행하는 취지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6월 호국(護國) 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 때 위기에 처한 조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에게 사랑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행사를 가졌다.

지난 6월 9일 오전 육군본부는 충남 계룡시 두마면 김관수(81)씨의 집에서 '나라사랑 보금자리' 1호 준공식과 입주행사를 열었다.

이날 새롭게 단장한 집으로 입주한 김관수씨는 6·25전쟁 당시 해병 이등 중사로 경기도 파주·장단지구 전투 등에 참전한 역전의 용사로 몸이 아픈 부인과 함께 어렵게 생활해 왔다.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은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6·25 참전 국가유공자에게 낡은 집을 새롭게 단장해 주어 여생을 행복하

나라사랑 보금자리 1호 입주행사에서 김관수씨 부부가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이란

유공자 21만명… 형편 어려운 사람에 혜택

육군본부에서 위국 헌신한 국가유공자 중 생활여건이 열악한 참전용사를 선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참전 군인의 복지증진 및 예우향상은 물론 범국민적 호국보훈의식을 함양하는 사업으로, 민·관·군 협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6·25 참전 국가유공자는 21만명이 생존해 있으며, 이들에게는 국가에서 참전수당으로 월 1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참전용사의 80퍼센트 이상이 참전 당시 무학자로 제대 후에도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다.

현재 생존 참전용사의 평균 연령은 81세 이상의 고령이다.

육군본부는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의 수혜자는 지역 보훈단체에서 추천받아 현지실사를 거쳐 후원기관과 연계하여 선정한다. 주거환경 개선 공사 후에는 준공식 및 국가유공자 문패 달아주기 행사로 참전용사의 명예를 높이고 있다.

게 살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다. 육군은 "이 프로젝트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무를 이행하는 취지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취지의 사업이 일부 야전 부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었지만, 육군본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업의 첫 수혜 대상자인 김관수씨의 집은 지난 4월 18일 공사를 시작해 연인원 7백80여명의 공병부대 장병과 굴삭기 등 50여 대의 중장비가 투입돼 한 달여 만에 완공됐다.

공사 결과는 놀라웠다. 김관수씨의 집 안팎이 몰라보게 바뀐 것이다. 냄새가 나고, 비좁던 재래식 화장실이 고급 좌변기와 샤워기까지 갖춘 최신식 화장실로 탈바꿈했다.

마당에 있던 흉한 고목과 너저분한 쓰레기, 폐창고와 오래된 담을 말끔히 걷어내고 그 자리에 잔디와 조경석, 산뜻한 조경용 울타리를 설치했다. 공사 후 김관수씨의 집은 아름다운 전원주택으로 변했다.

민·관·군 공동참여로 호국보훈 의식 함양

특히 그동안 여름이면 곰팡이 냄새가 나고, 겨울에는 외풍이 심했던 외벽도 최신 단열재를 갖춘 벽면으로 대체돼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보일러실·지붕·문틀·거실·부엌 등이 산뜻하게 단장됐다.

이번 사업을 위해 육군은 대전·충남지역 재향군인회, 6·25 참전유공자회, 무공수훈자회 등으로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53가구를 추천받았다.

육군은 이들 추천가구에 대해 지자체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 검증을 하고 수차례의 현장답사를 거쳐 올해 사업 대상자로 20가구를 선정했다.

사업 진행에 필요한 예산은 육군의 사업취지에 공감한 농협중앙회·신한은행·계룡건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후원하였다. 계룡시와 공주시도 건축 폐기물 처리를 지원해 주었다.

이번 나라사랑 보금자리 주택 1호 리모델링 공사에는 총 7천여만원이 투입됐다.

김씨는 "나라를 위해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 주고 크나큰 선물을 받으니 정말로 감사하다"며 "6·25 참전용사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든든한 육군 후배장병들이 있어 믿음직스럽다"고 말했다.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은 준공식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을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오늘 1호 준공식은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의 첫걸음에 불과하며 앞으로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이 확대돼 더 늦기 전에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계신 참전용사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 도움을 드리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육군은 6월에 준공되는 3가구를 포함해 대전·충남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20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대상자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G

글·이상흔 기자

지난 17일 병역 명문가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강건배씨 가문의 형제들. 왼쪽부터 강성만, 강건후, 강건배, 강계만, 강석훈씨. 건배·건후씨는 친형제이고, 나머지는 사촌간이다.

'올해의 병역 명문가' 대상 강건배씨 가문

3대 걸쳐 11명이 모두 313개월 현역복무

공정사회는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다. 그런 기회 속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진다. 공정사회가 되려면 먼저 주어진 의무를 회피하지 않고,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4대 의무 중에 '병역의 의무'는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성하다'는 수식어가 붙는다. 3대를 내려오면서 단 한명도 예외없이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가족을 소개한다.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2011년 병역 명문가 대상에 강건배(44)씨 가문을 선정하고, 지난 6월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상식을 열었다. 대상에 선정된 강씨 가족은 최고상인 대통령 표창과 상금 5백만원을 받았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치사에서 "당당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은 공정한 병역 문화의 표상이자 공정사회 구현의 훌륭한 롤모델"이라고 말했다.

병무청 이상경 대변인은 "병역 명문가는 1대 할아버지부터 2대 아버지와 그 형제, 3대인 본인과 형제, 사촌형제 모두가 현역 군 복무를 마친 가문 중에서 선정된다"며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갖게 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상 수상자인 강건배씨 가문 등 총 20개 가문이 표창을 받았다.

강건배씨 가족은 제주도 서귀포시 출신으로, 1대인 강재운씨를 비롯 2대인 강재운씨의 네 아들들과 3대인 강건배씨 등 6명의 후손

서경리 기자

등 3대 가족 11명이 모두 사병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이들의 총 군복무 기간은 313개월에 이른다. 이들 중 강건배씨의 막내삼촌인 고 강광섭(해병대)씨와 사촌동생 강석문(23·공군)씨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은 모두 육군 출신이다.

강건배씨의 할아버지 고 강재운(1919년생)씨는 6·25 전쟁에 참전했다.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고초를 겪었지만, 1954년 포로교환 때 돌아올 수 있었다. 강재운씨의 사촌형제인 고 강승우 소위는 1952년 6·25 당시 중부전선 철의 삼각지였던 백마고지를 사수하기 위해 포탄을 안고 적진에 몸을 날려 산화한 '육탄 삼용사' 중 한 사람이다.

1대인 강재운씨는 네 명의 아들을 두었다. 그 중 셋째인 강광석씨는 1968년 DMZ(비무장지대)에서 정찰활동을 하던 중 조우한 적과 교전하다 전사했다.

강건배씨는 "할아버지가 셋째아들을 잃었지만 슬픔을 삼키며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셨다"고 말했다. 전사한 셋째를 제외한 나머지 3형제들은 각각 두 명의 아들을 두었고 이들 6명도 모두 현역으로 병역을 마쳤다. 그 6명 중의 한 명이 강건배씨다.

강건배씨의 아버지 강광남씨는 장남이다. 강광남씨는 아들이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했을 정도로 군인에 대한 생각이 남달랐다고 한다. 강건배씨 본인은 부산대학 무역학과에 재학 중이던 1989년 2월 입대, 15사단에서 통신 관측병으로 군 생활을 하였다.

할아버지는 6·25 전쟁서 포로로 고초

대학 졸업 후 무역회사에 다니다가 현재는 해양로지텍이라는 해운회사의 대표로 있다. 강건배씨의 동생 강건후(37)씨는 논산 육군훈련소 조교로 군 복무를 마쳤고, 지금은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다.

강건배씨의 둘째삼촌인 고 강광철씨는 제주수산고를 졸업한 후 1971년 입대, 1974년 만기제대를 했다.

강광철씨의 두 아들 중 첫째인 강계만(34)씨는 고려대 경영학과 재학 중이던 1996년 12월 입대해 인천지역 61사단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했다. 현재는 매일경제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다. 둘째아들인 강성만(32)씨는 동아대 전기전자전파공업과 재학 중이던 1998년 입대해 25사단에서 군복무를 마쳤다.

강건배씨의 막내삼촌인 고 강광섭씨는 해병대 출신으로 해병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한다. 하지만 1990년 후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따라서 병역 명문가로 선정된 강건배씨 가문에서 현재 1대와 2대는 모두 세상을 떠난 셈이다.

강광섭씨의 큰아들 강석훈(27)씨는 홍익대 재학 중이던 2005년 육군에 입대해 72사단에서 보급수송대대 행정병으로 복무했다. 이때 군에서 익힌 엑셀과 워드 프로그램 사용법은 지금도 실무에서 유용하게 사용한다고 한다. 둘째아들 강석문(23)씨는 서강대 재학 중이던 2008년 공군으로 지원 입대하여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무장정비병으로 근무했다.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세상을 만들었으면"

병역 명문가 시상식에서 강건배씨는 1, 2대가 한 명도 생존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밝혔다. 강건배씨는 "군복부를 성실히 수행하셨을 정도로 건강했던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유달리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선친과 삼촌들이 이 상을 직접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강건배씨는 "우리 가족은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서 신체와 정신이 건강했기 때문에 군 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며 "군 생활 대가로 상을 받다니 영광스럽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에 가야 합니다. 저는 성실하게 군 생활을 마친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 바로 병역 명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군에 갔다 온 분이라면 누구나 받을 자격이 있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의 작은 노력이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세상'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G

글·이상훈 기자

연합

병역이행에 모범을 보여 수상한 장병들이 참석자들에게 경례하고 있다.

美 영주권자로 해병대 자원입대한 한승수 일병

"한번도 한국인임을 잊은 적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해병대에 자원입대한 한승수 일병은 해병 2사단 청룡부대에서 복무 중이다. 그는 미국 보스턴 칼리지에서 정치학과 2년 과정을 마쳤으며, 군 복무가 끝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학업에 힘쓸 예정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에 건너간 한 일병은 미국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병역의무가 강제된 것은 아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병무청의 모범병사 시상식에서 한승수 일병을 만났다. 한 일병에게 "영주권자인데 왜 입대했느냐"는 질문을 하자 1초의 망설임 없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저는 한번도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긴 모습과 말, 생각하는 게 모두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저의 정체성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당연하게 군 복무를 하는 것인데 이런 관심을 받고, 상까지 받는다는 것이 오히려 쑥스럽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사명감 타올라

모범병사 시상식에 같이 참석한 한 일병의 아버지 한광훈씨는 "아들이 군에 간다기에 당연히 육군에 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전화로 '아버지 저 해병대 지원했어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한 일병은 해병대에 지원한 이유에 대해 "군대 중의 군대로 알려진 해병대에서 군 생활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광훈씨는 "승수가 학교 다닐 때도 1~2등을 놓치지 않았는데, 군대도 1등 군대에 가고 싶다며 해병대를 지원했다"고 귀띔했다.

한승수 일병이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또래 젊은이들과 직접 부딪히며 친하게 지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저는 외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옛날부터 또래의 한국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니던 미국의 대학을 휴학하고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할까도 생각했지만, 곧바로 입대하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군대에서 조국의 친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저의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승수 일병의 꿈은 정치가가 되는 것이다. 한 일병은 미국의 선진 정치시스템과 한국 정치의 장점을 접목해서 한 차원 높은 정치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한다.

서경리 기자

"해병대 군 훈련이 힘들지만 힘든 것은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남는 것은 저의 소중한 전우입니다. 제가 훈련소 퇴소 후 자대배치를 받을 때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군에 온 것이 실감이 났고, 제가 진짜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이 타올랐습니다. 지금도 강화도에서 겨우 몇 킬로미터 떨어진 적진을 바라보며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이 누구보다 높습니다."

한승수 일병은 "내가 시상식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시간 전우가 나 대신 고생하고 있는 것이 미안하다"며 끈끈한 전우애를 드러냈다. G

글·이상흔 기자

병역면제 받고도 치료 후 자원입대한 이기범 상병

“대한민국의 군인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아플 때는 솔직히 면제 판정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병을 고치는 과정에서 생각이 달라지더군요. 저는 대한민국 남자로서 인생에서 한번 주어지는 군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병이 낫자마자 곧바로 자원입대했습니다.”

이기범(23) 상병은 신경분야 질환으로 2008년 5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당시 그는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있었다. 이로부터 2년 후인 2010년 6월 담당의사로부터 질병완치 통보를 받자, 이 상병은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고 곧바로 자원입대했다. 그 전의 질병치료 기간까지 합하면 그가 질병을 완치하는 데 모두 4년이 걸렸다고 한다. 이 상병은 현재 대전에 있는 1115 공병단에서 복무 중이다.

질병 치유 자원입대자 해마다 급증

이기범 상병 같은 질병치유 자원입대자는 2007년 3백46명에서 지난해에는 6백77명에 이르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0년 병무청이 자원입대 동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병역의무는 당연한 것’(53.2퍼센트)이라는 것과 ‘사회활동에 도움이 되어서’(28.4퍼센트)라는 대답이 대부분이었다.

첫 징병검사에서 병역감면 판정을 받고도 재검을 받아 현역 입대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1999년 병역처분 변경원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병역처분 변경원 제도는 병무청의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할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신청할 경우 질병을 치유하고 재검을 통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병무청의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병역처분 변경을 한 인원은 2천5백72명이다.

병무청은 또한 지난해부터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 만들기’ 목적으로 질병을 치료해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수기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런 홍보활동을 통해 젊은이들이 군에 대해 가진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원입대자의 병역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공유하여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이다.

이기범 상병은 “군에 오기 전에는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 조금

서경리 기자

막연한 개념이었지만 입대를 하니 더 구체적이며 확고해졌다”며 “이런 애국심이나 예절 등은 군에 오지 않았으면 쉽게 배우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병은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분단된 나라에 태어나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고 한다.

이 상병은 “제가 군에 가겠다니까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제가 괜찮다며 위로해 드렸다”며 “군에 온 것을 한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씩씩하게 말했다.

“오히려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더 건강해졌습니다. 이번 상이 제가 잘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은 군 생활을 잘하라는 격려상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군 생활에 임하겠습니다”. G

글 · 이상흔 기자

김영후 병무청장이 말하는 공정병역

“부정병역 면탈 발 못 붙이게 이중삼중 감시”

국민의 76퍼센트는 인기 연예인, 운동선수, 고위공직자 자녀 등이 병역을 불공정하게 이행한다고 여기고 있다. 지난 2월 17일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는 ‘공정한 병역이행’을 ‘공정사회를 위한 정부의 8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공정병역’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영후 병무청장을 인터뷰했다.

서경리 기자

병역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다. 잘나가던 정치인이 자식의 병역 문제로 낙마하거나 인기 연예인이 병역을 기피하려다 탄로나 팬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무대에서 사라져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병무청은 그동안 병무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병무행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병무청에서 지난 4월 실시한 ‘병무행정의 공정성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14.5퍼센트가 “병무행정이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다. 현재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의무자와 그 부모는 11.5퍼센트가 병무행정이 ‘불공정해졌다’고 대답한 반면, 일반 국민들은 19퍼센트가 불공정하다고 답한 것이다.

이는 과거 병무행정이 허술했던 시기에 징병검사를 받고 병역을 이행했던 부모세대가 그 시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병무행정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병역에 대한 이러한 인식 때문에 지난 2월 17일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는 ‘공정한 병역이행’을 공정 납세 등과 더불어 ‘공정사회를 위한 정부의 8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우리 사회에는 고위공직자 등 힘 있는 사람들이 병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언론에서 장·차관급 인사들의 최종 병역면제율이 일반국민들의 면제율보다 4~5배 높다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 잘못된 보도입니다. 장·차관 등 병역사항 공개대상자들의 병역면제율 11.3퍼센트는 신체검사 후 입영의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최종 면제율인 데 반해 일반국민 면제율 2.4퍼센트는 19세 징병검사를 받을 때의 최초 병역면제율이기 때문입니다. 19세 징병검사에서 현역이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도 그 이후에 사고, 질병, 군복무 중

"올 3월 '병역조사팀'을 직제화하여 병역면탈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 병역면탈 대부분이 재검과정에서 발생하는 점에 착안하여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도 신설했습니다.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면제처분 이후에도 확인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이 11월부터 시행됩니다."

4급 이상 공직자 병역이행 현황 (2011년 1월 31일 현재)

계	면제자 비율(명)	복무필 비율(명)
2만4천3백75명	11.3% (2천7백62명)	88.7% (2만1천6백13명)

일반국민 연령대별 병역면제율

연령대별 면제율 (%)	계	40~49년생 (61~70세)	50~59년생 (51~60세)	60~69년생 (41~50세)	70~79년생 (31~40세)
	29.3	38.5	33.8	30.5	18.3

에 다쳐 의병 전역하는 사람, 해외에 이주하는 사람 등 징병검사 이후에도 병역이 면제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장·차관급 인사 등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율을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들의 최종 면제율과 비교하면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장님은 '공정병역'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요.

"개인의 신체상태 등에 적합한 형태로 누구나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공정병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병역'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정확하고 투명한 신체검사 절차와 병역판정의 공정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둘째,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하려는 시도가 통하지 않는 제도와 시스템을 완비해야 합니다. 셋째, 병역이행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분위기와 병역이행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부정한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병무청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선 병역면탈 범죄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그동안 운영되던 TF팀을 금년 3월 '병역조사팀'으로 정식 직제화했습니다. 또 병역면탈 범죄 대부분이 재(再)신체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점에 착안하여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법제 정비도 필요할 텐데요.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면제처분 이후에도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4일 공포되어 오는 11월부터 시행됩니다. 아울러 병무청 직원이 특별사법경찰권을 갖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산업기능요원제도가 대졸 고학력자 등의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면이 없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산학 연계된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 등의 기능인력이 우선적으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도록 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병역지정업체 선정도 산학 연계에 참여한 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최근 연예인이나 프로 운동선수 등의 병역기피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5년간 발생한 병역면탈 범죄 사례를 분석해 보면, 면탈자 중 연예인·운동선수 등이 거의 절반(49.8퍼센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여론조사에서도 '인기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고위공직자 자녀 등이 일반 병역이행자와 비교하여 공정하게 병역을 이행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무려 76퍼센트가 일반 병역의무자보다 불공정하게 이행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 유명인들의 병역이행을 특별히 감시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유명인들의 병역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2008년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상임위에 상정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소위(小委)에 계류되어 있어 아쉽습니다.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선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 만들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병역 명문가' 선양사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난 4월 21일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한국프로야구협회, 대한가수협회 등 11개 단체와 '공정병역 협약'을 맺어 민간협력을 통해 '공정한 병역문화'를 이루기 위한 실천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또 현역병 입영장을, 입영자들에게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청년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배웅하는 가족들은 이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육군훈련소·306보충대·102보충대 등에서 입영가족과 함께 하는 입영문화제를 연중 개최하고 있습니다." G

글·배진영 기자

기획특집

물가안정·일자리 창출 한국경제 최우선 과제

잘 해냈다. 지난 3년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성장을 이뤄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 경제의 저력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하지만 위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금융위기는 새로운 과제를 우리 경제에게 부여했다. 물가안정과 일자리창출이 그것이다. 경제위기라는 거대한 파도를 두 번이나 넘은 우리 경제다. 힘도 있고 경험도 있다. 지혜를 모으고 뜻을 뭉치면 물가를 잡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한 발걸음은 이미 시작됐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출항인 부산항에서 밤에도 불을 밝힌 채 컨테이너 선적과 하적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 경제정책을 통해 G20 국가 중 모범적인 성장궤도를 달려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모범사례

금융위기 와중에도 플러스 성장 유지… G20 국가 중 6위에 올라

세계 주요국 수장들의 모임인 서울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지 반년가량 지났다. 서울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었던 우리나라는 G20 회원국 가운데 비교적 우수한 경제 성적표를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우리나라는 특히 경제성장 부문에서 G20 회원국 가운데 모범적인 국가가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되어 개최한 서울 G20 정상회의의 감격을 기억하는 이들에겐 새삼스런 얘기지만, 올 11월에는 프랑스에서 '칸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프랑스 언론들은 지난 6월 15일 프랑스 경제인연합회 메데프(MEDEF)의 로랑스 파리조 회장이 칸 G20 정상회의에 앞서 G20 회원국 재계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20(B20)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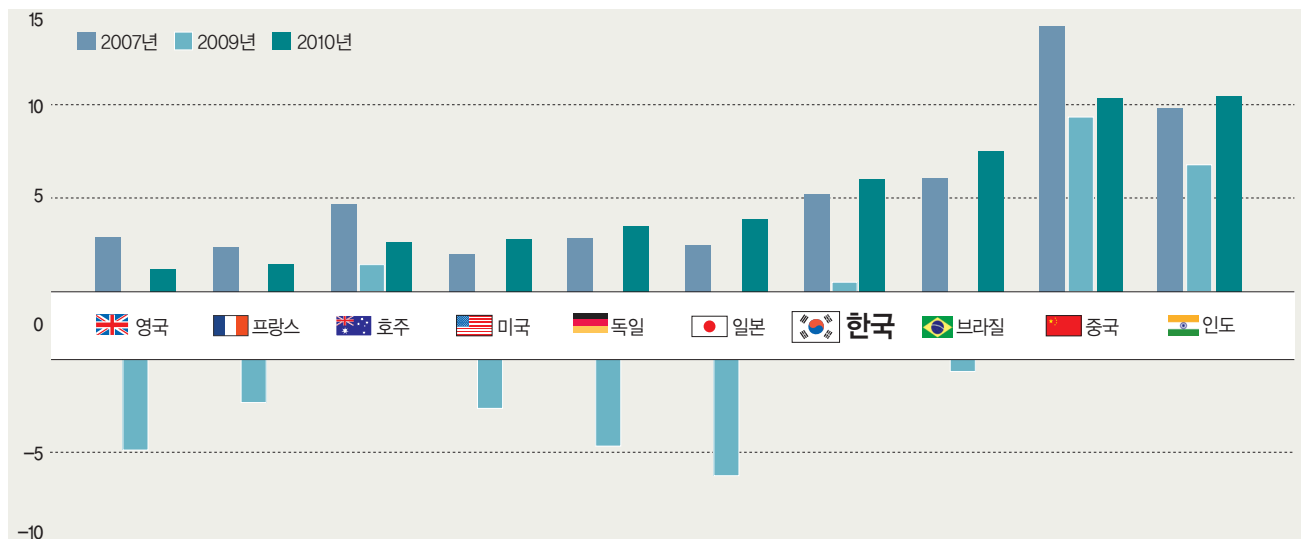
G20 정상회의 개최에 맞춰 '비즈니스 서밋'을 처음 개최한 서울 G20 정상회의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 흐뭇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세계인의 상식'이지만, G20은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과 유럽연합(EU) 의장국 그리고 신흥시장 12개국 등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다.

G20 국가의 총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며, 20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90퍼센트에 이른다. 전 세계 교역량의 80퍼센트가 이들 20개국을 통해 이뤄질 정도로 세계 경제에서 G20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OECD국가 중에선 가장 빠른 경제 회복세

이렇게 세계 경제계의 '대세'가 되고 있는 G20 무대에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은 새로운 성장 국가의 모델이 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6.2퍼센트로 G20 국가 중 6위를 기록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5백90달러(미화)로 9위였다.

G20 주요국가들의 경제성장률 (단위: %)

출처 IMF

경제성장률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전후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였다.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 전인 2007년 5.1퍼센트로 G20 국가 가운데 8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한 2008년 2.3퍼센트로 10위로 하락했다.

그렇지만 바로 다음 해인 2009년 세계를 휩쓰는 경제한파 속에서도 0.3퍼센트의 플러스(+) 성장을 하며 G20 국가 중 7위로 올라섰다.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난 것만도 다행인 해였던 2009년, 플러스 성장을 달성한 G20 회원국은 중국(9.2퍼센트), 인도(6.8퍼센트), 인도네시아(4.5퍼센트), 호주(1.3퍼센트), 아르헨티나(0.8퍼센트), 사우디아라비아(0.6퍼센트)와 한국까지 7개 국가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는 당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는 개발도상국이며 호주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원대국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최악의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 수출 의존국인 한국이 이 같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G20 국가 가운데에서도 매우 양호한 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 회복세를 이뤄 내 국제사회에서 '위기극복의 모범사례(textbook recovery)'로 평가받았다.

G20 회원국 중 2009년 최악의 성장률을 보인 회원국은 러시아로 전년 대비 −7.9퍼센트였다. 이어 일본(−6.3퍼센트), 멕시코(−6.1퍼센트), 이탈리아(−5.0퍼센트), 영국(−4.9퍼센트), 독일·터키(−4.7퍼센트) 순으로 좋지 않았다.

지난해 1인당 GDP 2만5백90달러는 2007년(2만1천6백53달러) 이후 3년 만에 2만 달러대를 회복한 것이기도 하다. G20 국가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 이후 줄곧 9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 경제성장률은 굴곡을 겪고 6위까지 상승했는데, 1인당 GDP는 제자리걸음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경제성장의 결실이 소득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최근 한 가지 눈여겨볼 수치가 공개됐다. 6월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계정상 올해 1분기(1~3월)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은 계정조정 실질 기준 1백39조2천1백63억원으로 가계의 민간소비(1백37조8백86억원)를 역전했다.

"체감경기 개선 위한 내수 진작 병행해야"

수출이 민간소비보다 많아진 것은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이다. 이러한 수치는 "지표경기는 좋은데 체감경기가 좋지 않다"는 괴리감의 일부를 설명해 준다. 수출 위주의 경제는 자칫 경제성장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가 개인보다 기업에 쏠리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결국 소득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신석하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동향연구팀장은 "우리나라가 성장을 계속하려면 수출 주도의 경제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며 "다만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서는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는 등 내수진작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

글·박경아 기자

조선DB

전세계 물가를 끌어올리던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섰지만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이에따라 각국 정부는 금리인하 등 물가 안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세계적 물가고…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

물가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은 '안정'에 있다. 물가가 급히 오르는 것도, 은 비상시에는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자물가가 오를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지난 2008년 시장은 치솟는 환율을 두고 둘로 갈라졌다. 물가안정이냐 수출성장이냐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성장이 우선이라는 측에서는 고환율이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수입물가가 올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과는 양쪽 모두가 맞았다. 환율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우려했던 대로 물가도 많이 올랐다. 2008년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4.7퍼센트 상승했다.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5퍼센트에 비해 갑절이나 높은 수치였다.

중국·유럽 등 인플레 우려 속 묘책 못 찾아

하지만 2009년 이후에는 다른 양상이 펼쳐졌다. 수출은 강력한 증가 추세를 이어 간 반면 물가는 안정을 찾았다. 2009~2010년 한국은 2년 연속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던 환율도 진정됐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가셨다. 2009년과 2010년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2.8퍼센트, 3.0퍼센트로 2008년에 비해 안정세를 보였다. 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셈이다.

최근 세계경제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이다. 2010년 하반기 이후 세계 각국의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실물경기 회복과 대규모 경기부양이 맞물린 결과다. 하지만 각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를 하면서도 쉽게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4일 중국 인민은행은 은행의 지급준비율(지준율)을 0.5퍼센트포인트 인상했다. 올 들어 벌써 6번째 인상이다. 이에 따라 중국 은행들의 지준율은 21.5퍼센트에 이르게 됐다. 중국이 지준율을 연거푸 올리는 이유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다. 중국의 5월 물가상승률은 5.5퍼센트로 3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식료품

한국, 물가잡기 고심

3월 4.7퍼센트 이후 상승세 꺾여

그 반대인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
한국은 양호한 평가를 받는다. 경기부양으로 유동성이 확대돼 소비

과 부동산가격의 상승, 원유를 비롯한 수입물가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린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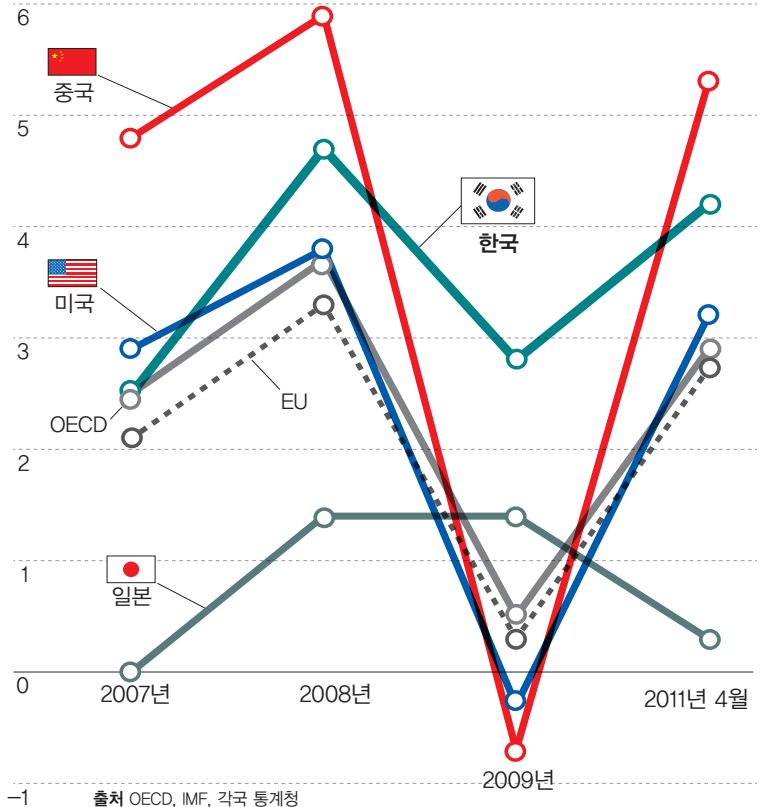
하지만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웠다. 경기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준율 인상은 금리인상을 피하면서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중국의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준율은 고객 예금 중 고객에게 돌려줄 돈을 중앙은행에 맡기는 비율이다. 지준율을 올리면 중앙은행에 맡겨야 할 돈이 많아져 시중자금이 감소하고 그 결과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유럽의 상황은 중국보다 심각하다. 영국 경제는 중국처럼 고속 성장하고 있기는커녕 오히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 와중에 물가마저 오르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지난 1분기 물가상승률은 4.1퍼센트로 3.3퍼센트였던 2010년보다 0.8퍼센트포인트 높았다. 4월에는 4.5퍼센트로 더 올랐다. 경기위축과 인플레이션이 함께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세계 각국 경기 위축 우려로 금리인상 카드 주저

그럼에도 영국 역시 이렇다 할 묘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빠르게 상승하는 물가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사상최저치인 0.5퍼센트에 묶어 두고 있다. 물가를 잡으려다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집권한 현 정부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공공지출을 축소하는 등 긴축재정을 실시하면서 경제가 위축된 터라 금리인상은 앞으로도 쉽게 꺼내들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도 치솟는 물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3.2퍼센트로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5월에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전월 대비 근원소비자물가가 전문가 예상치인 0.2퍼센트포인트를 상회하는 0.3퍼센트포인트 상승해 3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미국의 물가상승 역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탓이 컸다. 지난해 10월 배럴당 80달러 내외였던 WTI 가격이 지난 4월 1백14달러로 치솟으면서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렸다.

영국과 같은 이유로 미국 역시 금리인상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전미은행협회(ABA)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향후 1년간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고용부진과 주택가격 하락세 지속 등을 이유로 정부의 '출구전략'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도 지난 1분기에 4.1퍼센트 오르는 등 올해 들어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역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탓이 컸다. 하지만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석유류 제품가격이 안정되면서 지난 3월 4.7퍼센트에서 4월 4.2퍼센트, 5월 4.1퍼센트로 소비자물가의 상승세는 한 풀 꺾인 모습이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지난 6월 10일 기준금리를 0.25퍼센트포인트 인상했다. 소비자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 석유류와 농산물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이 지난 5월 23개월 만의 최고치인 3.5퍼센트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물가안정을 경제운용의 최우선순위로 두기로 하고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G 글·변형주 기자

5월 민간고용 전년 대비 3백92만명 증가

올 1분기 취업률 1.8퍼센트 증가… 대기업 이어 중소기업으로 고용 확산

글로벌 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로 2009년 고용 시장은 '암흑기'였다. 하지만 지난 4월 IMF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용 부문에서 G20 회원국 가운데 가장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글로벌 위기 이전 고용률을 회복하지 못한 반면, 우리나라는 이전 고용률을 빠르게 회복해가는 것은 물론 G20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였다.

실업률이 오르고 체감 취업률은 떨어졌다지만 취업 관련 기업들 사이에선 "지난해부터는 고용률이나 취업률이 다소 나아졌다"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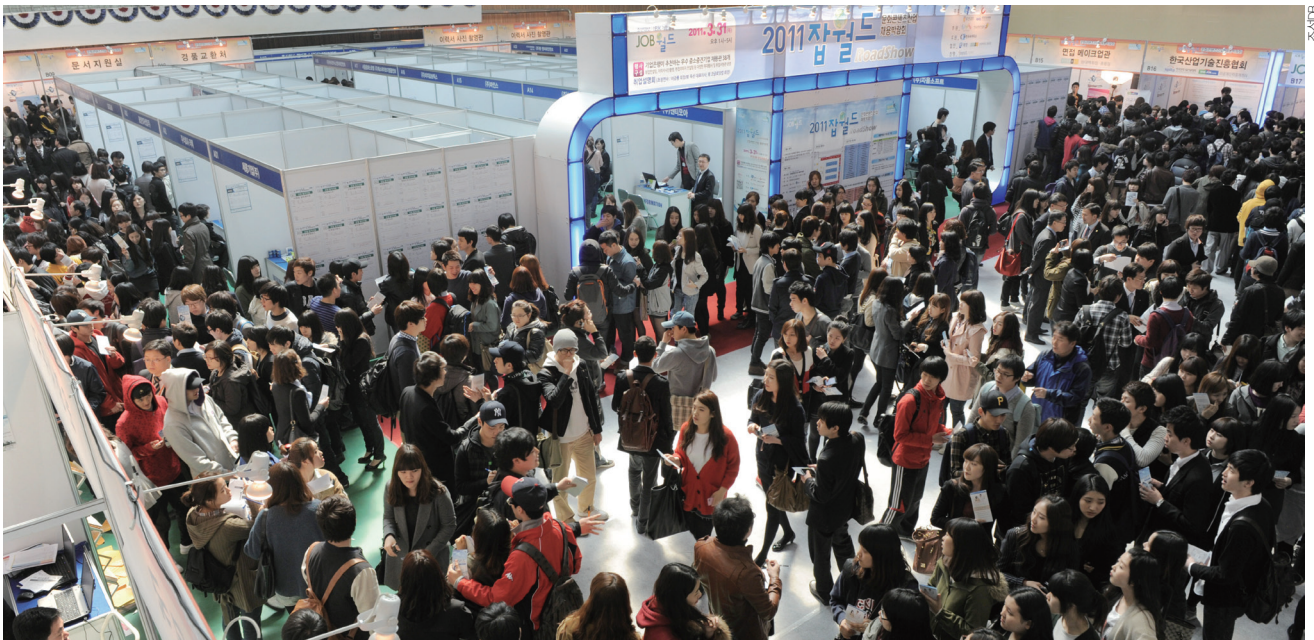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 정재훈 홍보팀장은 "실제로 지난해부터 취업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경기 호조로 대기업의 채용이 늘어났고 이것이 중소기업에까지 영향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에서 펼친 일자리 대책이나 실업 극복 캠페인, 취업 프로젝트 등의 고용책도 한몫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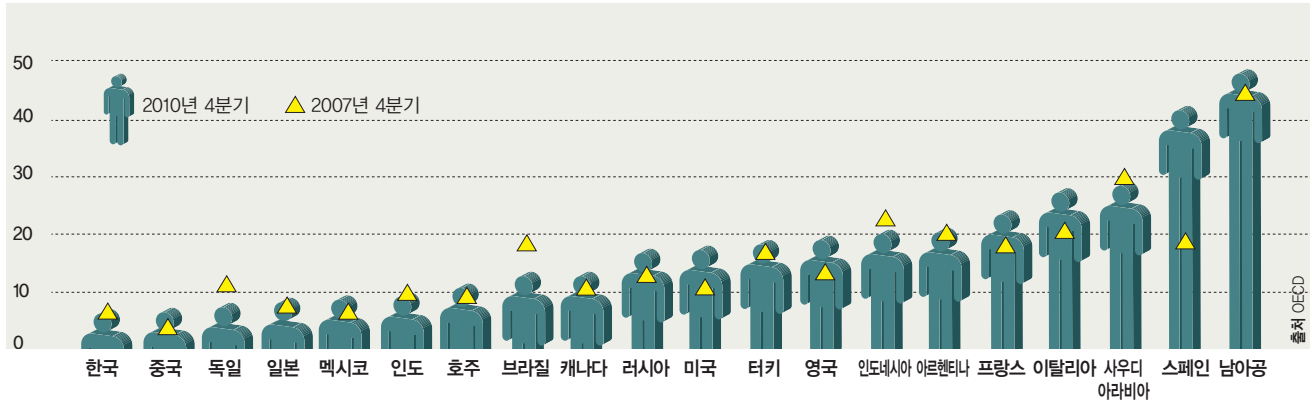
2010년 10월 OECD 월간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의 실업률이 지난 6월부터 2차대전 후 최고치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국가간 차이가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33개 회원국 가운데 29개국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3.6퍼센트로 가장 낮았으며 미국은 9.8퍼센트, 독일은 6.7퍼센트를 기록했다.

각국의 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이나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선 해외 취업을 선택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 서울의 유명 영어학원에서 근무하는 한 미국인 강사는 "미국의 상황에 비하면 한국은 괜찮은 편"이라면서 "미국에서 취업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고용이 비교적 활발한 한국으로 와 취업하게 됐다"고 전했다.

청년실업률 7.5퍼센트…그나마 G20 중 최저

우리나라 고용 여건은 2009년 글로벌 위기에 따른 성장둔화로 인해 다소 부진했으나 2010년 들어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추세다. 취업자 증감률 역시 2007년 1.2퍼센트

조선DB

지난 3월 31일 부천대에서 민간 기업 주최로 열린 현장채용 박람회. 현장에서는 구인과 구직이 활발히 이뤄졌다.

주요국 청년실업률 (단위: %)

에서 2008년 0.6퍼센트로 급감, 2009년 0.3퍼센트로 감소세였으나 2010년 1.4퍼센트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1년 1분기 현재 1.8퍼센트까지 회복했다.

위기로 인한 고용둔화 속도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일자리 대책 등을 통해 고용 여건을 신속히 개선해 나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청년실업률의 경우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위기 기간 중에도 증가폭이 미미해 2010년 4분기 기준 G20 국가 중 최저수준인 7.5퍼센트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등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장단기 일자리 대책을 추진했다.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도 그 중 하나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는 워크넷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취업장려수당을 최대 1백80만원 지원하는 '취업장려수당 지원제'와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전문인턴제'를 실시했다.

'취업장려수당 지원제' 등 일자리 대책 효과 나타나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와 중소·벤처기업 취업 시 1년간 급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취업 지원제'와 3년 이상 장기실업자가 중소기업 취업 시 세제를 지원하는 '장기실업자 취업 지원제'도 펼쳤다. 중소기업 취업 장려책이었던 취업장려수당 지원 실시로 4만2천2백79명이 취업했으며 8천5백명이 전문인턴제에 참여했다. 각각 당초 4만명, 1만명이 목표였던 것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적이다. 또한 전문인력 취업 지원을 통해 1백6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2010년 희망 근로 등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도 58만명에게 일자리가 돌아갔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했고 노동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인구도 증가했다.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시행 성과

정책	내용	성과
취업장려수당 지원	워크넷 등록 중소기업 취업할 때 취업장려수당 최대 180만원 지원	4만2279명 (4만명 목표)
전문인턴제	고졸 이하 미취업자 대상 전문 인턴제	8500명 고용 (1만명 목표)
전문인력 취업 지원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중소·벤처기업 취업 시 1년간 급여지원	106명 취업

출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고용 훈풍'은 지난 6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천4백66만1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5만5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3.2퍼센트로 작년 11월(3.0퍼센트)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아졌다. 청년실업률도 7.3퍼센트로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작년 동월보다는 0.9퍼센트포인트 높아져 청년층의 구직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 수도 81만9천명으로 작년 5월보다 2만6천명 증가했다. 이는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수치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62.1퍼센트로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고용률은 60.1퍼센트로 2008년 7월(60.3퍼센트)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위기 이전 수준까지 근접해 고용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2008년 5월과 비교했을 때 고용률은 60.5퍼센트로 불과 0.4퍼센트포인트 정도 차이 난다. 5월에는 공공 부문을 제외한 민간 부문의 고용이 작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3백92만명 증가하는 등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G

글·박근희 기자

OECD 회원국 중 한국·노르웨이만 '흑자'

미국·일본 등은 적자 골머리… 유로존은 그리스發 재정위기로 최악

OECD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세계 정상급이라고 평가한다. 지난해 OECD 회원국 가운데 흑자재정을 달성한 국가는 한국과 노르웨이 두 나라뿐이었다. 올해도 두 나라만이 흑자를 낼 것으로 OECD는 전망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도 낮은 편에 속한다. 채무를 줄이지 않고 소폭의 재정지출을 조정하는 것으로도 균형재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RB) 의장이 연이어 미국 경제에 대한 경고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법적 채무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미국이 심각한 금융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가 질 수 있는 채무의 한도를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현행법상 미국의 채무한도는 14조3천억 달러 수준인데 채무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채무가 이를 넘어서면 미국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가 파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재정건전성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은 엄청난 규모의 경기부양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이 급증했고 재정수지는 악화됐다. 미국이 대표적인 경우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09~2010년 2년 연속 10퍼센트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정부 부채는 위기 전인 2007년 62.2퍼센트에서 2010년 91.6퍼센트로 크게 불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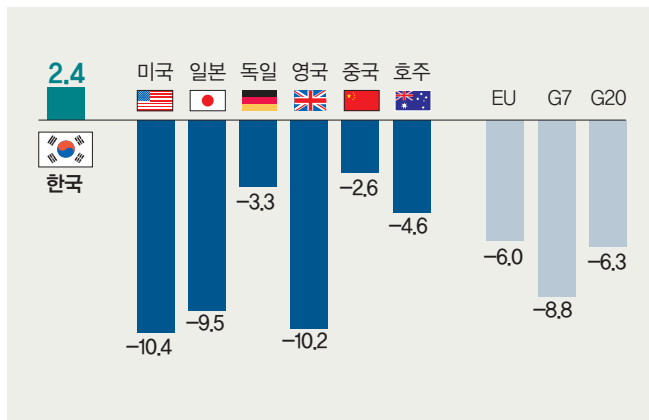
최근 미국의 채무한도 증액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이런 사정에서 불거진 것이다. 마이클 멀린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최대 적은 중국이나 테러리즘이 아니라 국가채무"라고 경고한 것도 무리가 아닌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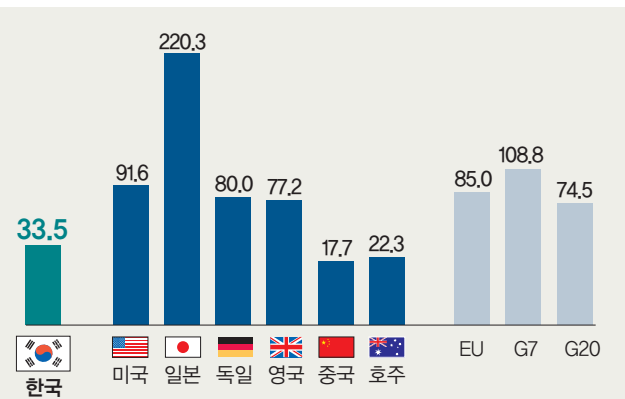
미국만이 아니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OECD 회원국 대다수의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다. 2010년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97.4퍼센트로 2007년 73.1퍼센트에 비해 24.3퍼센트 포인트나 불어났다. 특히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 등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들의 국가채무는 같은 기간에 3~4배나 폭증했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

한국 역시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나빠진 것이 사실이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신성장동력 확충 등에 예년에 비해 많은 재정을 지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IMF에 따르면 재정수지는 여전히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07년 27.9퍼센트에서 지난해 33.5퍼센트로 5.6

재정수지 (GDP대비, %)

출처 IMF

국가채무 (GDP대비, %)

출처 IMF

주요국 재정 현황 분류

	해당 국가	재정건전화 동향
1그룹 국제적 압력에 의한 재정건전화 추진	헝가리,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	– 재정상황 및 재정전망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조기에 큰 폭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발표 – 그리스, 아일랜드의 경우 큰 규모(GDP 대비 17~22퍼센트 수준)의 재정건전화를 추진
2그룹 선제적인 재정건전화 추진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슬로바키아 등	– 상당한 수준의 재정적자에 대한 장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발표하여 시장의 인식을 제고 – 1그룹에 비해 강도가 낮은 재정건전화를 계획(2012~14년 중)
3그룹 재정건전화 필요성이 높지만 주목할 만한 방안 미발표	미국 등	– 큰 폭의 재정건전화가 요구되지만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재정건전화 방안을 지연 – 미국은 의회에서 2012회계연도 예산안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이 결정될 예정
4그룹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 유지	한국, 호주, 칠레,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등	– 재정적자나 국가채무를 감소시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소규모 지출절감이나 한시적 경기부양 조치의 중단 등이 필요

출처 OECD, 기획재정부

퍼센트포인트 많아졌다. 하지만 이는 유로(2010년 85.0퍼센트)나 G7(2010년 1백8.8퍼센트), G20(2010년 74.5퍼센트) 등에 비해 낮은 수치다. 재정수지 측면에서도 균형을 잘 잡고 있다. 2010년 OECD 회원국 가운데 흑자재정을 달성한 국가는 노르웨이와 한국뿐이었다. OECD는 올해도 두 나라만이 흑자재정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07년 이후 OECD 회원국들은 대부분 적자재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2009년 한 차례만 소폭의 적자를 냈을 뿐이다.

국가채무의 질적인 면에서도 한국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실제 재정수지에서 일시적인 지출과 수입을 뺀 수치), 순채무(총채무에서 정부 보유 금융자산을 차감한 액수), 경제성장률과 금리의 격차 등 3가지 지표를 통해 측정한 국가채무 건전성 비교 결과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계경제가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 악화의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그리스발 재정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공포에 떨고 있다.

그리스가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으면서 국가부도에 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리스가 자력으로 위기를 극복할 힘이 없기 때문에 추가 구제금융이 성사되지 않으면 유로존 전역으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조선DB

재정건전성이 세계 각국 재정당국의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경주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담 개막식.

정부, 미래지출 대비 재정건전화 지속 추진

일본도 최악의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 IMF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는 2백20.3퍼센트를 기록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붕괴 이후 줄곧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 대책에 실패한 데다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OECD는 각국이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넘어서고 있다지만 미래지출소요 등을 감안하면 재정건전성 향상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충고다. 2025년까지 GDP 대비 재정수지를 평균 5퍼센트포인트 정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다.

특히 재정적자가 심각한 일본의 경우 9.2퍼센트포인트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재정수지 적자를 단계적으로 줄여 2020년까지 흑자화한다는 재정운영전략을 발표하고 재정구조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호주, 칠레 등은 재정이 건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OECD는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의 재정이 양호한 상태지만 저출산, 고령화 등과 관련한 미래지출소요를 감안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G

글 · 변형주 기자

집값 안정… 전셋값에 정부 역량 모은다

금융위기로 전 세계적 자산시장 추락 속 견고한 모습 보여

전 세계 경제를 휩쓴 '2008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주택 시장의 부실에서 비롯됐다.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했다. 실제로 미국과 유로존의 주택 시장은 몸살을 앓았다. 아일랜드, 그리스 등 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들의 사정은 더욱 심각했다. 이 와중에도 한국의 주택 시장은 견고한 모습이었다.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크지도 않았고 회복도 빨랐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전 세계 자산 시장은 끝 모를 추락을 시작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주가지수가 반 토막이 났고 '불패신화'로 일컬어지던 부동산 시장도 뒷걸음질을 쳤다. 주택 가격은 위기 이후 7개월 동안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국민은행의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는 2008년 9월 101.2(2008.12=100 기준)로 정점을 찍은 후 2009년 3월까지 7개월 연속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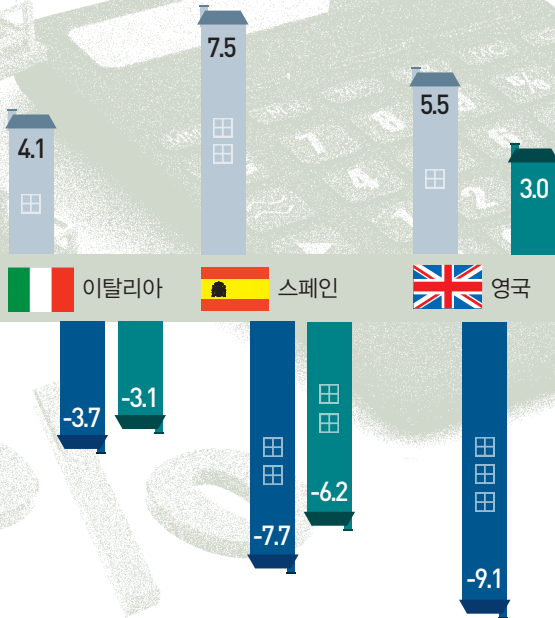
하지만 2009년 4월 이후에는 회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주택 매매가격 지수가 2009년 4월 99.1로 전월 대비 0.1 상승한 것을 시작으로 매월 조금씩 올라가 2009년 12월에는 101.5에 이르렀다. 상승 추세는 멈추지 않았다. 지난 3월에는 105.7로 2008년 최고점을 4.5퍼센트가량 상회했다.

한국의 주택 가격은 세계적으로도 안정적인 편에 속한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2010년 주택 가격 변화율은 –0.2퍼센트로 2009년 –2.3퍼센트보다 개선된 모습을 나타냈다. 대출조건 완화, 건설업체 자금지원, 세제혜택 등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미국·유로존 '다시 시작된 하락세'

정의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시장의 회복에는 정부의 다양한 경기부양 정책의 영향이 컸다고 판단된다"며 "저금리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여겨진다"고 분석했다.

이에 비해 금융위기의 타격을 크게 받은 미국의 2010년 주택 가

4.1
7.5
5.5
3.0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3.7
-3.1
-7.7
-6.2
-9.1

격 변화율은 –5.0퍼센트로 2009년 –4.3퍼센트보다 오히려 악화됐다. 미국 주택 시장의 불안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S&P 케이스 실러(Case Shiller) 사가 발표하는 미국의 전국 주택 가격지수는 지난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5.06퍼센트 하락했다. 이는 2002년 2분기 이후 8년 반 만의 최저치다. 20대 도시의 주택 가격지수도 9개월 연속 하락했다.

미국 주택 가격은 2009년 2분기 이후 잠깐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금융위기 당시 차압됐던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다시 내리막길에 들어섰다. 미국의 전국부동산중개협회(NAR)에 따르면 지난 4월 거래된 주택의 37퍼센트는 정상 가격보다 20퍼센트 이상 저렴한 급매물이었다. 차압 매물의 시장 출회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미국 주택 가격의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국가들도 타격을 받기는 마찬가지였다. 2009년 프랑스와 영국의 주택 가격은 각각 6.7퍼센트, 9.1퍼센트나 하락해 미국보다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재정위기로 구제금융까지 받은 나라들은 더욱 심각하다. 아일랜드의 주택 가격은 2009년 9.8퍼센트 떨어진 데 이어 2010년에는 13.6퍼센트나 폭락했다.

재정위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스페인도 몸살을 앓고 있다. 주택 가격이 2009년과 2010년 각각 7.7퍼센트, 6.2퍼센트 내려앉았다. 스페인 주택 시장은 금융위기 전까지 유럽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었다. 2000년대 초 건설경기 호황과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저축은행의 부동산 부문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주택 시장은 삽시간에 한겨울 속으로 들어갔다.

스페인 주택 시장의 고난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강력한 긴축재정을 실시하고 있는 데다 지난 1분기 실업률이 21.3퍼센트를 기록하는 등 실물경제도 여전히 얼어붙어 있기 때문이다.

잘나가던 중국·호주 부동산도 '경고음'

주택금융 부실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라고 모든 나라의 주택 가격이 추락한 것은 아니다. 중국 국토자원부에 따르면 중국의 주택 가격은 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에도 25.1퍼센트나 올랐다. 베이징에 소재한 부동산 조사업체인 드래곤노믹스의 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이 업체에 따르면 중국 9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2009년 10퍼센트 상승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21.5퍼센트나 치솟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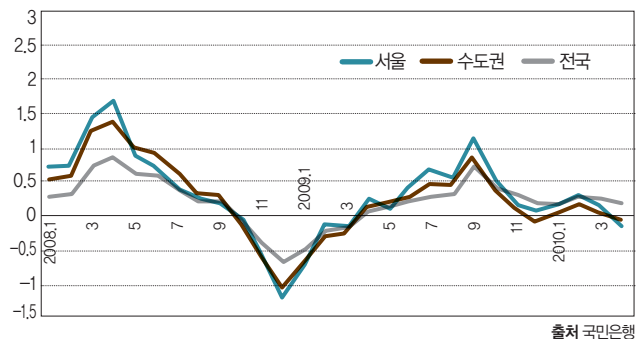
하지만 중국 주택 시장에도 올해부터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올해를 기점으로 거품이 꺼질 것이라는 예측이 잇따르고 있다. 드래곤노믹스에 따르면 지난 4월 9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9퍼센트의 내림세를 보였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도 상당수 도시들의 부동산 가격이 향후 10~20퍼센트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잘나가던 호주의 부동산 시장도 최근엔 이상신호를 보내고 있다. 호주의 주택 가격은 2009년 1.7퍼센트, 2010년엔 10.1퍼센트나 올랐다. 선진국 부동산 시장 가운데 최고의 상승률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얘기가 달라지고 있다.

호주통계청에 따르면 호주의 지난 1분기 주택 가격은 전 분기 대비 1.7퍼센트 하락했다. 호주의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올라 호주의 주택 경기가 예전의 활력을 되찾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G

글·변형주 기자

전월 대비 주택 매매가격 변화율

출처 국민은행

금융위기 불구 소득불평등지수 개선중

복지예산도 86조 넘어 총지출의 28퍼센트로 역대 최고 수준

이명박정부는 복지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기초노령연금제·장애인연금제 도입 등 복지제도를 확충해 왔다. 감세정책의 결과 소득 5분위 배율·지니계수 등 소득분배도 개선됐다. 우리나라의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은 G20 주요 회원국 가운데 중간 수준이다.

이명박정부에 대해서는 뿌리 깊은 선입견이 있다.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복지정책이 후퇴하고 복지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선입견, 이른바 양극화 현상이 계속 심해지고 있다는 선입견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사실과는 다른 글자 그대로 선입견에 불과하다.

우선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후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참여정부가 짠 마지막 예산인 2008년 예산에서 복지예산은 68조원이었다. 복지예산은 2009년에는 75조원, 2010년에는 81조2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금년도 복지예산은 86조4천억원으로 작년보다 6.3퍼센트가 늘어난 것이다. 이는 총지출 증가율 5.5퍼센트를 웃도는 수치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복지예산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퍼센트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복지제도도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다.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이 기초노령연금제도다. 소득·재산 하위 70퍼센트의 노인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 제도는 2008년 1월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도입됐고, 그해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됐다.

뿌리 깊은 선입견에 가려 사실 왜곡

금년도 수급대상은 3백87만명으로 대상자 한 사람에게 매달 9만1천2백원까지 지급된다. 2008년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중풍이나 치매노인을 국가가 보살피게 됐다.

작년 7월에는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補塡)해 주

조선DB

고양시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노인들이 사회복지사의 지도로 NIE(신문을 활용한 교육) 수업을 받고 있다. 이명박정부 들어 사회복지 부문의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

는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됐다. 이로 인해 35만명의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명박정부 들어와서 사회복지전산망(행복이음)이 완성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덕분에 종래 공급자 위주의 급여시스템이 수요자 위주로 바뀌면서 중복 수급이나 수급 누락 같은 불합리한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다. 김용하 보건사회연구원장은 이로 인해 한 해 절약되는 예산을 3천억~4천억원으로 추산했다.

감세정책으로 중산층 가처분소득도 개선

양극화와 관련해서도 현 정부의 점수는 그리 나쁘지 않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양극화 추이와 시사점'이라는 리포트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수년간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퍼센트 계층을 하위 20퍼센트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 소득 5분위 배율이 커지면 상위소득과 하위소득의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해석되어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판단함), 소득 10분위 배율(상위 10퍼센트 계층을 하위 10퍼센트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 지니계수(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소득 불평등 측정 지표. 0에 가까울수록 균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균등한 것으로 나타남)가 모두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시장소득 기준)은 2003년 이래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08년 6.16을 고점으로 하락세로 반전했다. 2010년 시장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6.03을 기록하여 전년도의 6.14에 비해 감소했다. 가처분소득 기준 5분위 배율도 2009년 4.97에서 작년에는 4.82로 개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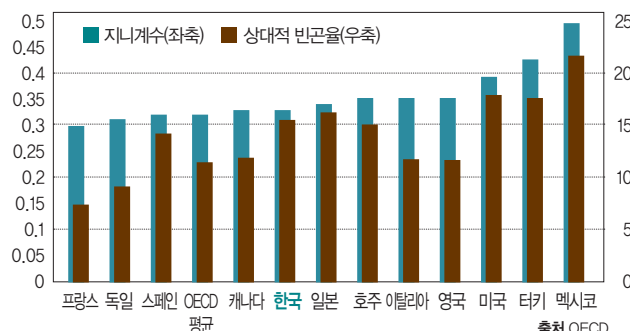
소득 10분위 배율(시장소득 기준)도 참여정부 기간 중 계속 증가하다가 2008년 5.08을 고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작년도 10분위 배율은 4.97로 2009년의 5.06에 비해 낮아졌다. 가처분소득 기준 10분위 배율도 4.07로 2009년의 4.22에 비해 감소했다.

지니계수(시장소득 기준) 역시 2003년부터 계속 높아지다가 2009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2010년 지니계수는 0.314로 2009년의 0.320에 비해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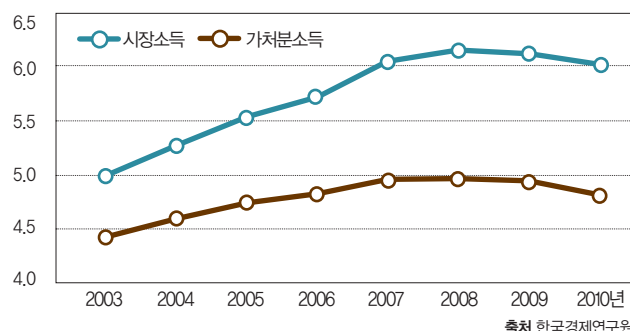
이 보고서를 작성한 설윤 연구위원은 이러한 양극화 감소의 원인으로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후 추진한 감세(減稅)정책을 꼽았다. 조세부문의 감소는 가처분소득의 개선으로 나타났으며, 감세정책으로 인해 상위계층보다 중산층이 더 큰 혜택을 입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G20 주요 회원국들

지니계수 국제비교

출처 OECD

지니계수: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한다.

소득 5분위 배율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가운데 중간 수준이다. 한편 유엔개발계획(UNDP)이 국가별 국민소득과 교육수준, 평균수명, 유아 사망률 등을 종합 평가해 매년 내놓는 인간개발지수(HDI) 순위에서 한국은 작년에 12위를 차지했다. 이는 종전의 26위에서 14계단이 뛰어오른 것이다.

복지제도 정착으로 '돌봄노동' 분야 일자리 크게 늘어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김용하 원장은 "이명박정부는 애초부터 '퍼주기식 복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생각 아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청년실업 문제 등이 생각보다 안 풀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크게 는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각종 복지제도가 도입, 정착되면서 중풍·치매노인 돌보미 등 '돌봄노동' 분야의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김용하 원장은 "이렇게 만들어진 중·고령 여성의 일자리가 연간 25만 개에 달한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전체 일자리가 크게 줄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G 글·배진영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물가안정·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관심”

지난 6월 2일 취임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의 살림을 책임지는 나라의 가장 큰 살림꾼이다.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과 위기극복 과정을 함께했던 박 장관은 물가상승과 대외적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와 국민 살림을 안정시키는 데 연일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경호 기자

박재완 장관은 국민의 살림살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특히 서민의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중한 시기에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6월 16일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서 만난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 국면을 지나 성장과 분배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서민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나라살림을 맡게 된 어려운 입장을 이렇게 밝힌 것이다.

취임 이후 연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박 장관은 이날도 인터뷰 직전 한국 경제상황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방한한 국제통화기금(IMF) 대표단을 만나 이들이 약 2주간 벌인 한국경제 실사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한국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박 장관은 “IMF는 오늘 브리핑에서도 우리 경제에 대해 선진국과 비교해 건실하고 양호한 상태라고 진단했다”며 “내년 역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괜찮다는 전망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이명박정부를 마라톤으로 비교하자면 지금까지 30킬로미터쯤 달려온 셈입니다.”

박 장관은 “그동안 기본기와 체력으로 달려왔다면 앞으로 남은 거리는 정신력과 투지로 달려야 한다”며 “앞으로 5천만 국민과 함께 마라톤을 완주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금의 우리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와 고용은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높은 물가상승으로 체감경기가 부진하고, 대외적으로 유럽과 미국 등지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향후 경제정책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중장기 성장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부문별로 미시적인 대책을 추진하면서 서비스업 선진화, 신성장동력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가계·기업·금융

부문 등 경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동반성장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녹색성장, 교육·과학기술 혁신,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제지표는 좋은데 서민 살림살이는 더 어렵다는 목소리가 왜 나오는지요.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성장률이 6퍼센트대로 올라서고 지니계수가 하락하는 등 작년에 성장과 분배지표가 동시에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체감경기가 거시지표 개선을 따라가지 못해 서민 살림살이가 여전히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체감경기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은 경기적 요소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고용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일자리 미스매치 등으로 인해 청년층 고용사정이 어렵고, 높은 원자재 가격 등에 따른 물가상승 및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국민소득과 가계소득 측면에서 실질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구조적 측면에서는,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이 낮아 수출호조가 내수 증가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부문간 성과 격차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민의 생활안정 체감을 위해 어떠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봅니다. 물가는 국민들이 경제정책을 피부로 느끼는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이므로 총력을 기울여 안정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수급안정,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등의 장·단기 미시대책을 추진하고 공공요금의 경우 인상수준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분산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성장과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을 통해 경제 전반의 고용창출력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성장동력 육성과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해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 근로조건 보호 강화, 유연근무제 등 고용형태 다양화,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시장경쟁에서 탈락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근 무상복지 논쟁이 뜨겁습니다만.

"무상복지는 재원조달 방안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인기영합주의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은 한 번 도입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고소득층을 포괄하는 복지혜택 도입은 장단기적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도입된(built-in) 복지제도 유지를 위한 지출만으로도 향후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한, 무상복지는 서비스가 공짜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도덕적 해이와 재원낭비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정된 재정여력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서민을 중심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서민을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자립·자활을 유도하는 등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취임사에서 대외여건 악화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어떤 점들이 우려되는지.

"미국의 올 1분기 성장률이 1.8퍼센트에 그치는 등 글로벌 경기회복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경제지표 둔화가 고유가와 일본 대지진 등 일시적 요인에 상당부분 기인하여 글로벌 경기회복 둔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또한 유럽 재정위기도 위험요인입니다.

그리스, 포르투갈 등 유럽 주변국을 중심으로 재정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재정위기가 유럽 주변국에 국한될 경우 우리 실물경제에 큰 충격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재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은 최근 조정국면에 있으나 중동 정세 불안,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등으로 추세적인 상승국면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는 한편, 내수활성화, 경제 및 산업 체질 개선 등으로 대외 충격에의 대응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관은 〈위클리 공감〉 독자들을 위한 간략한 취임소감을 밝히며 인터뷰를 마쳤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온 국민에게 확산되어 명성과 실상, 거시지표와 체감경기가 부합하는 선진 일류 경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성장잠재력을 착실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G

글·박경아 기자

솔직한 소통으로 국민에게 동의 구해야

행정행위도 정무적 판단 병행해 정부 노력 매끄럽게 국민에 전달을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금융 부문으로 전이되는 것을 슬기롭게 차단함으로써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막고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피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대책 마련에 미흡했고, 복지요구 등에 대해 매끄럽게 대처하지 못해 아쉽다.

조선DB

서울시내의 한 마트를 찾은 고객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최근 들어 소비자 물가와 공공요금 등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 엄청난 재앙이었다. 원인은 여러 가지로 지적되지만 역시 가장 직접적인 것은 외환보유고 관리의 실패였다. 결국 우리는 IMF로부터 210억 달러의 지원 패키지를 받는 동시에 금리를 30퍼센트 근처까지 올리라는 가혹한(?) 처방을 받으면서 엄청난 구조조정을 시작하였다. 1998년 경제성장률은 −6.9퍼센트, 주가는 1998년 6월 280까지 하락하는 신기록을 세웠고 실업자가 130만명이 생기는 아픔을 겪었다.

KDI의 분석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는 6퍼센트 중반이었던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4퍼센트 중반으로 끌어내렸다. 무려 2퍼센트 포인트 하락해 비율로 보면 6.5퍼센트가 4.5퍼센트가 되었으니 30퍼센트 하락한 것이다. 병원에 입원한 후 병이 나아서 퇴원을 하기는 했지만 입원 후유증 때문에 체력 자체가 떨어져 버린 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은 박수 받을 만해

1998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만 4백억 달러로서 우리가 IMF에서 지원받은 돈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던 것을 보면 우리의 저력을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외환위기의 후유증은 상당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 경제는 큰일날 뻔한 상황에서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였다. KDI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4.3퍼센트 정도로서 글로벌 위기 전에 비해 거의 변동이 없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0.5퍼센트포인트 정도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경험한 것에 비추어 보면 상당한 수준의 선방을 한 것이다.

특히 위기 직후 신속한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추락하는 총수요 수준을 유지하면서 은행의 외화부채에 대한 정부보증을 실시한 점 등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또한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외국 자본이 약 7백억 달러가 빠져나가는 와중에서 외환보유고로 대응을 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통화스와프협정을 통해 3백억 달러 조달에 성공한 점 등은 상당한 업적이라 할 만하다.

결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금융 부문으로 전이(轉移)되는 것을 슬기롭게 차단함으로써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막고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피해 간 것이다.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은 대목이다.

먹을거리 가격 상승시키는 인플레 잡아야

우리 경제의 2009년 성장률은 0.2퍼센트에 불과했지만 폴란드와 호주에 이어 OECD 국가 중 3위였고 2010년 성장률은 6.2퍼센트로서 OECD 국가 중 터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1위를 기록한 국가가 바뀐 것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는 거의 최고 수준이다.

비록 우리 스스로의 상태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국가들이 대부분 성장률 하락과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매우 긍정적이고 이는 현 정부의 커다란 공헌으로 기록될 만하다.

한때 잘나가다가 몰락하고 있는 그리스 사태를 보면, 평소 국가부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어느 정도의 파장을 경제에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시위대로 인해 거의 전쟁터처럼 되어버린 아테네의 모습을 전해 들으면서 우리의 처지가 상대적으로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한 데서 오는 아쉬움도 상당하다. 글로벌 위기의 직격탄은 피했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상당하다. 무엇보다도 인플레 문제가 심각하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화폐 발행을 늘리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호주의 홍수, 일본의 대지진 등까지 겹치면서 물가상승은 폭탄이 되어 우리를 덮치고 있다.

특히 이번 인플레가 고약한 점은 주로 먹을거리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공산품의 경우 가격이 오르면 안 사면 그만이지만 먹을거리는 필수재이고 가격이 올라도 구매할 수밖에 없다. 소득에서 식품구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엥겔계수인데 소득기준으로 가계를 5분위로 나누는 경우 가장 형편이 어려운 1분위 가계의 엥겔계수는 20퍼센트가 넘고 가장 형편이 나은 5분위의 경우 엥겔계수가 10퍼센트 근처이다.

사정이 이러니 먹을거리 가격 상승은 저소득층에 직격탄이 된다. 최근의 물가상승이 현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지만 국정을 책임진 주체로서 일단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최근 우리 국민의 복지에 대한 갈증은 유례 없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편복지 무상의료 무상보육에 반값등록금까지 이슈가 되면서 우리 경제에서는 복지라는 화두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우리 경제상황이 이러한 요구를 다 충족시키기에는 어림도 없다는 점이다. 복지예산은 벌써 86조4천억원으로 국방과 교육예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과부하가 걸리면서 국민들의 체감 복지수준이 개선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물론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맞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지만 좀더 의연하게 접근하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별하고 국민과 솔직한 소통을 통해 이를 알리면서 동의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반의약품 수퍼 판매' 논란 정부 체면 구겨

일반의약품의 수퍼 판매 같은 이슈도 청와대에서 나서기 전에 적절한 수준으로 실행했더라면, 모양새가 훨씬 나았을 텐데 혼쭐이 나고서야 움직이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부 체면을 구기고 말았다.

미리미리 주요 현안을 챙기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줄이고 행정행위에 있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정무적 판단을 병행함으로써 정부가 최선을 다해 움직이고 있다는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매끄러움이 전제가 되어야 고생해서 일을 잘해 놓고서도 비판은 비판대로 받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 갈 수 있는 것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이 겹치면서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수많은 요구들이 분출하겠지만 그럴수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의연한 모습으로 많은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를 바란다. G

글 ·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불법복제 꼼짝마!”… 저작권경찰 출또요~

문화부와 전국 4개 사무소에 33명… 지난해 1인당 60건 단속·20건 검찰 송치

불법복제물 유통은 정상적인 콘텐츠산업을 위축시키고 음성 경제를 키우는 부작용을 낳는다. 이러한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이들이 공무원 신분의 저작권경찰이다. 지난 2008년 9월 출범 이후 불법복제물 유통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저작권경찰. 여성 저작권경찰들도 현장단속에 몸을 사리지 않는다.

여성 저작권경찰 이향순 대전사무소장(오른쪽)과 박용경씨가 6월 15일 경기도 시흥시 불법복제물 제작현장에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오전 7시 30분 경기도 시흥시 미산동의 한 다가구주택 2층. 좁은 복도 양옆으로 난 현관문 중 한 곳 앞에 선 일행들의 얼굴엔 긴장감이 돌았다. 예닐곱의 일행 중 두 명이 여성이다.

“압수수색 나왔습니다. 문 좀 열어 보세요.”

안에서 “누구세요?” 하는 남자 목소리가 나더니 잠시 후 체념한 듯 현관문이 열렸다. 20평방미터쯤 되는 원룸 실내 모습이 여느 가정집은 아닌 게 한눈에 드러났다.

곳곳에 쌓인 각종 영화와 만화영화 불법복제 DVD들. 테이블 위에는 한꺼번에 DVD 20장을 복제할 수 있는 컴퓨터와 DVD롬, 재킷 제작용 컬러프린터와 종이, 대용량 플라스틱 잉크병 등이 수북했다. DVD 중엔 요즘 극장에서 상영 중인 〈쿵푸팬더2〉 불법복제물까지 눈에 띄었다.

이 집에 들어선 일행은 저작권경찰들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단속반원들이다. 불법복제업자에게 영장을 들이민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의 남성 저작권경찰이었지만, 능숙하게 열린 문을 다시 못 닫게 고정하고 증거물 수집에 앞장선 사람들은 대전사무소의 여성 저작권경찰인 이향순(43) 소장과 박용경(42)씨였다. 이날은 서울·대전사무소의 합동단속이었다.

‘길보드 차트’ 시대에 이어 웹하드와 P2P 등 파일공유 사이트들을 활용한 불법복제물 제작업자·유통업자들의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과의 몸싸움, 머리싸움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 저작권경찰이다. 공무원 신분이면서도 검찰과 협력

해 저작권 침해범죄 수사 업무를 맡고 있는 저작권경찰은 서울·부산·대전·광주 등 전국 4개 사무소에 33명(여성 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1인당 60건의 저작권 침해사범을 단속하고 이 중 20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 시간가량 집안과 승합차 한 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끝내고 승합 차량 두 대에 불법복제 DVD와 컴퓨터, 프린터기 등 압수물품을 싣고 나서야 저작권경찰과 단속반원들은 한숨을 돌렸다.

"오늘은 수월한 편이네요. 업자도 순순히 응하고 압수물품도 많지 않았어요. 이제 사무소에 들어가 물품목록을 만들어야죠."

이 소장은 현장단속에 나오면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문 열리기 직전"이라고 말했다. "현장단속 대상이 사무실이든 집이든, 문이 열리기 전까진 그 안의 상황을 전혀 짐작할 수 없거든요. 일단 문을 선선히 열어 줄지부터가 의문이고, 문을 연 다음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불법복제의 증거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거든요."

이 소장은 "강제로 현관문을 뜯고 영장을 집행한 적도 있는데, 그런 경우 나중에 문 수리비도 물어 줘야 했다"며 "한번은 서울 용산상가에서 현장단속을 할 때 주인부부가 격렬하게 방해해 결국 수갑을 채워야 했다"고 전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아내나 아이 등 가족이 함께 있을 때입니다. 한번은 가정집 단속현장을 나가 보니 불법복제업자 아내가 임신 중인 거예요. 혹시라도 충격을 줄까 봐 그 아내를 다른 곳에 보낸 다음 압수수색을 했죠."

이렇게 만만치 않은 현장단속에서도 남성 못지않게 '거침없이 나서는' 이 소장이다. 그가 근무하는 대전사무소는 전체 5명의 저작권경찰 가운데 3명이 여성인 전국 유일의 '여초 저작권경찰 사무소'다.

현장단속 땐 업체들이 잡상인 취급하기 예사

이 소장은 2006년 정보통신부 시절 체신청 소속으로 소프트웨어 단속업무를 맡으며 불법복제물 단속업무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 소장과 이날 현장단속에 함께 나선 박용경씨는 2004년 역시 체신청 소속으로 소프트웨어 단속업무를 시작했다. 그리고 현명숙(48)씨와 김찬(44)씨는 2007년, 사무소의 막내인 이종진(38)씨는 2005년부터 단속업무를 맡아 왔다.

2008년 9월 저작권경찰 출범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로 소속을 옮겨 온 이들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단속 이외에도 저작물과 영상, 음반 등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 DVD방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해오고 있다.

이 소장은 여성 저작권경찰의 경우 상대가 남성 저작권경찰보다는 덜 경계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저작물 유통 차단에 앞장서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저작권경찰 대전사무소 직원들. 왼쪽부터 이종진·김찬씨, 이향순 소장, 박용경·현명숙씨.

"오늘과 같이 압수수색영장을 동반한 '강제단속'이 아니라 임의단속인 경우 업체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업체 관계자들에게 단속 취지를 설명하고 단속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데 여성이란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죠."

하지만 여성이어서 겪는 어려움도 적지 않다. 상가나 시장골목 등에 있는 불법 복제물(DVD·CD·게임물 등) 판매점과 같은 곳에선 험악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위험스런 상황이 예측되는 현장단속에는 아무래도 남성 저작권경찰이 앞장선다.

지속적인 단속효과로 '클린 존' 희망 보여

때로는 보험설계사나 '잡상인' 취급을 받기도 한다. 박용경씨는 "언젠가 웹하드업체의 사무실을 방문했더니 문 앞에 출입금지자 명단이 붙어 있는데 1번이 저작권경찰이었고 2번이 잡상인이었다"며 "알고 보니 우리는 둘 다더라"라고 했다.

다른 어려움들도 있다.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는 "경기도 나쁜데 단속까지 하느냐"는 항의를 받기도 한다. 가정집에서 이뤄지는 불법복제들은 대부분 '생계형'이다 보니 궁색한 살림살이에 인간적인 안쓰러움을 느끼기도 한다.

"그래도 저작권보호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우리를 반갑게 맞는 업체를 만날 땐 고맙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류 콘텐츠 수출국입니다. 우리가 먼저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 콘텐츠를 보호해 달란 말을 못 꺼내잖아요."

이 소장이 웃었다. 이 소장을 비롯한 저작권경찰들은 내일 아침 또 다른 현장을 찾아나설 것이다. 이들의 수고를 통해 불법복제물 유통이 없는 '클린 존'에 대한 희망을 발견한다. G

글과 사진·박경아 기자

한복 디자이너 이혜순 씨

“한복은 친환경적이고 배려심 넘치는 옷”

우리나라를 문화강국으로 자리매김해 주는 중요한 원동력이 있다. 바로 ‘한(韓)스타일’. 한(韓)스타일이란 우리 문화의 바탕이 되는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 등 6가지를 말한다. 이 중 한복의 아름다움을 배우고자 이혜순 한복 디자이너를 만났다.

이혜순 디자이너는 “한복 세계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충분히 알아야 한다”며 “한복이 무조건 불편하다 생각하지 말고 직접 입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복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은 이미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막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혜순 디자이너를 만나 한복의 매력을 재조명해 봤다.

정부가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6가지의 한(韓)스타일을 선정하고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한복은 어떤 점에서 우수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한복은 친환경적이에요. 식물의 껍질, 누에고치 명주, 목화솜 등 자연에서 실을 뽑아서 그 실로 짠 원단에 염색을 예쁘게 하죠. 한복은 또 스스로 라인을 만들어 줘요. 서양 옷처럼 여자들의 체형을 강조해 가슴, 허리, 엉덩이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옷 자체가 라인을 만들어 아름다움을 표현하죠.

일상복으로 만든 한복에는 입는 사람에 대한 배려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한복의 깃은 서양의 와이셔츠처럼 조이지 않으면서 단아한 느낌을 전해 주죠. 한마디로 입었을 때 편안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배려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제가 한복을 입고 생활하면서 느낀 감탄과 감동이고 20년 동안 한복 디자인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랍니다.”

해외에서도 한복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해외 디자이너들이 한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G20의 일환으로 ‘C20’이라는 문화 행사 때 한복쇼를 열었어요. 외국인이 관람객의 80퍼센트 이상이었는데 쇼가 끝나고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고(故)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드레스를 디자인한 것으로 유명한 터키 디자이너 제밀 이펙치 씨도 있었는데 저를 ‘한국이 지켜내야 할 보물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이런 기립박수와 칭찬은 제가 아니라 바로 한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복이 인정받고 있는 걸 봐서 세계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복의 세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한복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긍심을 가진 후 세계화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복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평소에 한복을 한번 보기도 힘든 게 현실이에요.

“맞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머니가 한복 입고 나가시는 모습을 종종 봤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한복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심지어 결혼할 때 한복을 처음 입는 경우도 있죠. 한복이라는 문화가 단절돼 버린 거죠.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이혜순씨의 작업실에는 고운 옷감과 아름다운 한복이 가득했다. 식물의 껍질, 누에고치 명주, 목화솜 등 자연에서 실을 뽑아 만든 한복은 친환경적이며 옷 자체적으로 아름다운 라인을 표현한다.

가끔 대학교에 특강을 가면 학생들에게 한복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물어봐요. '색이 예뻐요, 선이 고와요'라고 하다가 마지막엔 꼭 '불편해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한복 입어 봤냐고 묻죠. 많은 학생들이 입어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안 입어 보고 어떻게 불편한 걸 알죠? 제가 아무리 한복 디자이너라고 해도 한복이 불편했다면 20년을 한복만 입고 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도 무조건 한복이 불편하다 생각하지 말고 직접 입어 봐야 해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한복은 입는 법이 복잡하고 비싸 특별한 날만 입는다는 이미지가 강한데요. 일본의 기모노나 중국의 치파오처럼 한복도 평소에 입을 수 있게 활성화할 순 없을까요?

"일본의 기모노나 중국의 치파오는 예복과 평상복이 따로 있습니다. 예복의 경우 굉장히 화려하고 장식도 많죠. 한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복과 평상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예복만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에 입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면접 볼 때, 친구 만날 때, 운동할 때 등 때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다 다르잖아요. 서양식 옷들은 이렇게 때에 따라서 입을 옷을 다 구비해 놓고 한복은 항상 예복을 입는 것만 생각합니다. 일상복 라인의 한복이라면 평소에 입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담연' 홈페이지에서 한복 웨딩드레스를 봤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한복 웨딩드레스는 어떤 것인가요?

"요즘 결혼식에 가 보면 다들 서양식으로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들이 따로 폐백을 하는데, 폐백이 사실 우리나라 전통혼례 문화예요. 담연은 이런 전통혼례 문화를 이어 가는 공간으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한복 웨딩드레스예요. 예전 결혼식 때 입던 한복에서 색을 바꾸고 비율을 조절했죠. 기존의 전통혼례복인 빨간색, 파란색에서 벗어나 요즘 사람들의 기호, 체형, 생활 패턴에 맞게 제작한 것이 제가 만든 한복 웨딩드레스입니다."

한복 웨딩드레스는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한복 웨딩드레스를 찾는 사람이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 1년에 두 팀 또는 한 팀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한복으로 드레스를 하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직접 입어 보고는 감동해서 작은 선물과 함께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이블 위에 꽃바구니를 지목하며) 저 꽃도 선물 받은 거예요. 고객분이 혼사 예쁘게 잘했다고 떡하고 함께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한글날'처럼 '한복 날'도 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께서는 한복 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복 날이 생기면 너무나 좋죠. 휴일까지는 아니어도 모두가 하루 정도 한복을 입고 생활하는 한복 날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에게 결혼기념일에 한복 입고 데이트하라고 권하거든요. 결혼할 때 다들 한복 한 벌씩 지었으니까 결혼기념일마다 한복 입고 데이트하는 거죠. 웨딩드레스를 입고 데이트할 수는 없으니까. 어때요? 우리 이것부터 한번 힘써 봐요." G

글과 사진 · 남경동 (한양대 관광학과 4년)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기자단은 참신한 시각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이슈, 정책 등을 취재하고 다양한 홍보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활동기간은 1년으로, 현재 6기 10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의 열정 넘치는 이야기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식블로그 도란도란문화놀이터(culturenori.tistory.com)에서 더 자세히 만날 수 있다.

SK커뮤니케이션즈

지난 5월 청계광장에서 펼쳐진 하이서울페스티벌 재능나눔 공연에 참가하고 있는 조잔희씨(왼쪽).

사물놀이 청년 잔희, 꿈을 이루다

'드림 캠페인' 첫 주인공에 뽑혀 김덕수패와 두 차례 합동공연

"오늘이 있기까지 저의 꿈을 키워 주시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꿈을 열심히 찾고 또한 꿈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일 서울 진선여고에서 열린 '주니어 리더십 페스티벌' 무대에서 풍물 판굿 공연을 마친 사물놀이 청년 조잔희(20 · 서원대학교 음악학과 1년)씨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 말이다. 조씨는 이날 김덕수패 사물놀이 한울림 예술단원들과 함께 20분간 무대에 섰다. 장차 김덕수 명인 같은 최고의 사물놀이꾼이 되려는 조씨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조잔희씨는 꿈꿔 오던 무대에서 지금까지 배운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그의 멋진 상모놀이와 춤에 관중도 환호했다. 이번 공연 무대는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정책 포털 공감코리아와 싸이월드가 함께 추진중인 '드림캠페인'의 주인공 조씨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자리다.

드림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청소년들의 꿈을 격려하는 축제인 '주니어 리더십 페스티벌'에 조씨를 적극 추천한 결과다.

'드림캠페인'은 꿈을 가진 청소년들의 꿈을 이루어 주는 프로젝트다. 저마다 다양한 사연을 가진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제시하면, 이 가운데 2천5백명 일촌들의 공감을 얻은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에는 혼자 이룰 수 없는 꿈도 서로 함께라면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조씨는 올해 초 이 캠페인의 첫번째 주인공으로 선정돼 '드림피

플'이 됐다. 선천적으로 뇌수종이란 병을 안고 태어났지만 병을 극복하고 사물놀이꾼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조씨의 사연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이것으로 올초부터 조씨의 꿈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조씨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공감코리아와 싸이월드 측은 세 번의 무대를 마련했다. 무대에 오르기 전 연습과 훈련 또한 김덕수패가 맡았다. 조씨에게 이번 무대는 두번째, 지난 5월 청계광장 하이서울페스티벌 재능나눔 무대에서 첫 공연을 펼쳤다. 세번째 무대인 마지막 공연은 오는 7월에 있을 예정이다.

SK커뮤니케이션즈

조잔희씨(왼쪽)가 연습중간에 스승인 한울림예술단 홍윤기 수석단원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씨는 태어나자마자 3일 만에 박달재휴양림 부근 충주 오은사 보육원에 맡겨졌다. 오은사 주지 자혜(65) 스님의 뜻이었다. 선천성 뇌수종 아이 입양을 신도들은 반대했지만 스님은 그를 무조건 받아들였다. 이름은 잔희라고 지었다. '물 흐르듯 자유로워라'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러나 잔희군은 몸이 꼬이고 먹으면 계속 토하는 거식 증세를 보이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다.

선천성 뇌수종… 출생 3일 만에 보육원에

입양한 그해 11월, 스님은 서울로 가던 중 경추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되는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만다. 병원에서 출생 3개월 내 수술을 권했기 때문에 조씨를 서울로 데려가 검사라도 받을 요량이었다. 다행히 당시 조씨는 스님과 동행하지 않았기에 화를 면했지만 사고 뒤 스님은 휠체어에 평생 의지하는 신세가 됐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거치면서 신기하게도 조씨의 상태는 호전돼 건강해졌다. 스님 말대로 조씨의 운명을 자신과 맞바꾼 형국이 됐다. 오은사 사정이 어려워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했지만 조씨가 여섯 살이 되던 해 검사를 받은 결과 의사로부터 "뇌에 물이 고인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게 기적"이라는 소견을 들었다고 한다.

이 소견으로 조씨는 한때 임상연구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재차 검사를 받은 결과 자연치유로 '완치'라는 기적 같은 판정을 받았다.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건강을 찾은 조씨가 사물놀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서부터였다. 스님은 사물놀이에 관심 있는 조씨를 한국국악협회 충주지부 김경태(38) 사무국장에게 소개했다. 대학입학 때까지 조씨를 지도한 김 사무국장은 "잔희는 아무리 힘들어도 사물놀이 연습을 게을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조씨는 4월부터 매주 상경해 김덕수패 공연장인 광화문 아트홀에서 하루 3시간씩 맹연습을 하고 있다. 조씨를 직접 가르치고 있는 한울림 예술단 홍윤기(41) 수석단원은 그에게 열정과 끈기를 강조했다. 홍 수석은 "꿈속에서조차 사물놀이하는 장면을 연상할 정도로 훈련을 거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학 3년부터 사물놀이 배우기 시작

홍 수석은 조씨가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연 중에도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며 코칭을 멈추지 않았다. 조씨의 어머니 자혜 스님도 무대 앞에서 지켜보며 그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살아오는 고비마다 조씨에겐 도움의 손길과 행운이 뒤따랐다. 그래서인지 조씨의 얼굴에는 어두운 구석이 없다. 소심한 성격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음악은 그의 모든 것이 됐다. 공연을 마친 조씨의 얼굴은 온통 땀으로 뒤범벅돼 있었지만 피곤한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조씨는 오는 7월 마지막 무대를 남겨두고 있다. 지난 두 번의 무대가 예행연습이었다면, 7월 무대는 그야말로 '꿈의 무대'인 셈이다. 평소 그의 우상이었던 김덕수 명인과 함께 무대에 서기 때문이다. 조씨의 꿈은 "사물놀이를 통해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조씨는 그것을 직접 실천해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말한다. "실현할 수 없는 꿈은 없다"고. G

글 · 이혁진 (공감코리아 정책기자)

변사라 '락킹코리아' 대표

"난 저질러 본다, 왜? 젊으니까"

대한민국의 20대는 바쁘다. 학점, 봉사, 아르바이트, 인턴, 취업 준비 등 무엇 하나 놓칠 수 없어 정신없는 생활을 한다. 여느 20대처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마음만큼은 느긋한 한 20대가 있다. 그는 진정한 꿈을 향해 저돌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20대의 특권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G20세대, '락킹코리아'의 변사라 대표를 만나 보았다.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꿈 하나로 자비를 털어 용감하게 잡지사업을 시작한 젊은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진면목을 해외에 알리는 사회적 기업인 '락킹코리아'의 변사라(25) 대표다.

16세에 유학을 떠나 미국 워싱턴주에서 고교와 대학을 졸업한 그는 현지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무지함'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한국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한다. 워싱턴대 재학 시절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리는 팔찌를 나누어 주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한 그는 한국의 제 모습을 세계에 보여 주고자 대한민국 홍보잡지를 만들기로 했다.

변 대표와 오랜 친구인 박상아(27)씨와 최정윤(26)씨도 함께 의기투합해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에 동참했다. 지난해 9월 첫 호가 발간된 무료잡지 〈락킹〉은 이들의 열정이 만든 종합 문화매거진이다.

젊으니까 일단 저질러 보자는 변사라 대표는
2005년 미국 워싱턴주 노스웨스트크리스천 고교 졸업
2009년 워싱턴대 심리학과 졸업 **현재** '락킹코리아' 대표

무료잡지 〈락킹〉 4호째… 미국 등 5개국 이상에 배포

'락킹(roking)'은 'Republic of Korea'의 약자에다 현재진행형인 'ing'를 붙인 신조어다. 현재 〈락킹〉은 4호까지 발간됐고, 미국 유명 대학가를 포함해 5개국 이상에 배포되고 있으며, 웹사이트(www.roking-korea.com)도 운영 중이다.

최근 새로 이전한 서울 중구 예장동 락킹코리아의 사무실을 찾았다. '신규 잡지사들이 흔히 부딪히는 자금난에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듯 그곳은 쾌적하고 활기찼다. '신개념의 한국 알리기'라는 꿈을 안고 함께 도전하는 그들의 열정 때문이 아닐까. 인터뷰를 위해 마주앉은 변 대표의 얼굴에서 세상을 향한 꿈과 포부가 묻어났다.

〈락킹〉 첫 호가 발간된 지도 거의 1년이 되어 갑니다. 앞으로의 한국 홍보에 대한 비전이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락킹〉에 외국인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한국의 모습을 담는 데 주력했어요. 하지만 잡지의 주요 타깃 독자는 바로 '대한민국에 대해 딱히 관심이 없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됐습니다.

한국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콘텐츠만 담다 보면 아무래도 한국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과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담아 '글로벌 매거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락킹>을 만드는 변사라 대표와 최정윤, 박상아씨(오른쪽부터)와 <락킹>의 표지들.

예를 들어 한국의 DJ문화를 소개할 때 미국에서 유명한 DJ의 취재 내용도 함께 담아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지요. 이외에도 '뉴욕의 한인타운 지도' 등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제공해 더 많은 외국인들이 읽는 잡지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변 대표님이 한국 홍보잡지 창간과 독도 알리기 캠페인과 같은 일에 나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흔히 그러한 일은 특정 인물이나 비중 있는 단체가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도 좋은 아이디어와 열정만 있다면 얼마든지 나라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시절에 했던 '독도 팔찌 전달 캠페인'도 간단한 것이었어요.

'독도는 한국 영토입니다(DOKDO IS KOREAN TERRITORY)'라고 새겨진 팔찌를 제작해 거리에서 무료로 나누어 줌으로써 외국인들에게 큰 부담감 없이 독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활동한다면 굳이 기관이나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뜻은 좋아도 선뜻 사업을 시작하기가 힘들었을 텐데요.

"원래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 마음 가는 일을 찾다 보니 취업보다 창업을 하게 됐어요. 한국이란 콘텐츠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요. 제가 다루고자 하는 콘텐츠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열정을 다한다면 한국도 알리고 돈도 되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을 알리는 잡지 발간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과연 돈 되는 사업이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서 우리의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대한민국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는데요. 효과적인 한국 홍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발적인 국민 참여가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일반 국민의 노력에 지원을 해 줌으로써 더욱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는 외국에 태국 음식을 알리기 위한 레스토랑을 열 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듯 국민들이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보다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요."

G20세대의 한 명으로서 또래 G20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해주세요.

"어떠한 일을 계획할 때 한국뿐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계획하고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다들 영어도 많이 배우고, 한국에서 시작해도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젊은 만큼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기 전에 무작정 저질러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우린 아직 젊으니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실패가 귀중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 취업 등에도 도전해 세계로 진출했으면 좋겠어요.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구상해 한국에 본사를 둔 삼성, 현대, LG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앞으로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지만 변 대표의 포부는 대단했다. 그는 최근 '락킹코리아'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도 개발, 온라인상에서도 한국 홍보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변 대표는 이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이 한국에 대한 콘텐츠 확산의 연결고리로 작용하기를 기대했다. 세계를 향해 도전하고 성공한 모습을 보여 주고 싶다는 변 대표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G

글 · 박지현 (하버드대 경제학부)

올여름 '예술캠프'에 풍덩 빠져 볼까?

방학 맞아 10개 시도에서 초·중·고생 1천7백여 명 참여

조선DB

감수성을 키워주는 예술캠프. 문화체육관광부의 '방학 예술캠프'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도 함께 참여한다.

올 여름방학 감성지수를 높일 수 있는 예술캠프가 전국에 마련된다. 전국 10개 시도 1천7백여 명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학 예술캠프'가 그것이다.

'방학 예술캠프'는 각 지역의 문화자원에 각 지역의 문화예술인, 대학생의 재능 나눔이 결합해 어린이·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체험학습을 지원한다. 고은 시인, 박재동 화백 등 유명 예술인이 명예교사로 참여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무용·미술을 통해 배우는 음악', '무용과 연극을 통해 배우는 미술', '전통예술·연극·미술이 함께하는 영상수업' 등 예술통합형 프로그램인 '이게 바로 나예요' 캠프를 운영한다.

국립남도국악원은 대금, 피리, 해금 등 8개 분야의 국악 전공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악캠프'를 연다. 최고 명인이 참여해 직접 지도할 계획이다. 울산 문화예술센터 결에서는 반구대 암각화를 테마로 스토리텔링한 9개의 워크숍과 6개의 프로그램 '선사의 꿈! 예술로 통하다'를 마련한다. 연극놀이, 노래창작, 미술, 몸놀이, 미디어아트, 타악퍼포먼스 등을 통해 선사시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캠프다.

"참가자 20퍼센트는 문화 소외계층 자녀로"

미션수행을 통한 예술 체험캠프도 있다. 광주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문화예술 상상캠프'를 진행한다. 이 캠프는 도내 9개 문화예술 공간과 연계해 지역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부산은 오픈스페이스배에서 진행하는 통합형 미술 체험캠프 '미술아, 놀자-숲속미술관 캠프'와 인디고 서원에서 진행하는 인문학 캠프 '꿈을 살다-창조적 열정을 지닌 청소년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다' 등 2개의 캠프를 마련한다.

이 밖에 비올라,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등 악기를 배워 볼 수 있는 '악기야 놀자'(충북도립예술단), 전북의 맛과 멋, 소리를 배워 볼 수 있는 '청소년문화 빅뱅캠프'(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 등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숙주 사무관은 "캠프 참가자의 20퍼센트를 문화소외계층 자녀로 구성, 다양한 만남을 통해 소통의 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방학 예술캠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예술캠프를 매년 확대·지원해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G

글·박근희 기자

‘방학 예술 캠프’ 프로그램

시도	캠프명	캠프내용 · 캠프장소	대상 · 모집인원	캠프일정 진행장소	접수기간 · 접수방법	운영단체 및 연락처
서울	아트캠프 ‘이게 바로 나예요’	무용 · 미술을 통해 배우는 음악, 무용과 연극을 통해 배우는 미술, 전통예술 · 연극 · 미술이 함께하는 영상수업 등 예술통합형 프로그램	초 · 중생 120명	8월 6~10일 한국예술종합학교	8월 6~10일 한국예술종합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기관 단위 선착순 모집	한국예술종합학교 www.karts.ac.kr 02-746-9072
부산	미술아놀자-숲속미술관 캠프	통합형미술 체험캠프	부산지역 초등학생 90명	7월 30일~8월 21일 (기간 중 토, 일) 오픈스페이스 배	7월 15~21일 오픈스페이스배 홈페이지 통한 선착순 모집	오픈스페이스배 www.spacebae.com 051-724.5201
	인문학 캠프 ‘꿈을 살다-창조적 열정을 지닌 청소년,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다’	인문학 책을 매개로 한 토론형 문화예술교육 캠프	부산지역 고등학생 150명	8월 10~12일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	7월 1~31일 인디고서원 홈페이지 내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 (indigo-book@hanmail.net) 접수	인디고서원 www.indigoground.net 051-628-2897
인천	IAP(이압)! 신나는 여름예술캠프!	만화, 동화, 사진, 외국어, 도자를 통한 통합예술 캠프	초등 220, 중등 35(인천관내공부방어린이 130명, 도서지역 25명, 일반학생 100명 내외)	8월 1~12일 인천아트플랫폼	7월 11~22일 홈페이지 접수	인천아트플랫폼 www.inartplatform.kr march156@ifac.or.kr 032-760-1007~8
광주	문화예술 상상캠프! (우리만의 상상으로 광주를!)	미션수행을 통한 예술 체험캠프	광주지역 초 · 중 · 고등학생 100명	8월 10~12일 광주 전역9개 문화예술 공간(*숙박 : 중흥 골드스파)	7월 4~22일 홈페이지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 (gjarte@gjarte.or.kr)	광주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www.gjarte.or.kr 062-670-5761
울산	선사의 꿈! 예술로 통하다	반구대 암각화를 테마로 스토리텔링한 9개의 워크숍과 6개의 프로그램 (연극놀이, 노래창작, 미술, 몸놀이, 미디어아트, 소리엽서, 아카펠라, 타악퍼포먼스, 애니메이션)	울산지역 중학생 120명	8월 6~9일 관성 생활문화 연수원	6~7월 (지역모집)울산지역청소년 단체 및 울산지역중학교 협력, 지역언론 홍보 및 교육청과 연계 학교 안내장 발송	문화예술센터 결 www.artgyul.com 052-291-3855
충북	여름음악캠프 ‘악기야 놀자’	개인레슨, 그룹레슨, 오케스트라 수업, 마스트클래스 및 앙상블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도내 초 · 중 · 고등학생 140명 (바이올린 50명, 비올라 20명, 첼로 30명, 더블베이스 10명, 플루트 10명, 클라리넷 10명, 타악기 10명)	8월 8~13일 수안보(예정)	6월 20일~7월 10일 모집공고 후 접수(추후 공지 예정)	충북도립예술단 art.cb21.net 043-220-3821
충남	예술한마당-예술하고 놀자	우리의 소리, 몸짓, 두드림, 옛이야기가 어우러져 만들어가는 전통문화 예술 체험. 전통소리, 난타, 사물놀이, 전통춤 예술캠프	도내 초등학생 120명	1기 : 8월 1~4일 2기 : 8월 5~8일 부리면수통리체험마을	7월 19일까지 학교장 추천	사단법인 한국도농 문화교류협회 www.kamce.kr 010-2898-6623
전북	읽고 배우고 기행하는 판소리 문화유산 따라하기	북장단, 사물놀이, 판소리 배우기, 판소리공연체험 등	도내 초 · 중학생 200명 (초등 150명, 중등 50명)	1차 : 8월 8~10일 2차 : 8월 11~13일 벽골제 한옥체험관, 판소리공예체험관 등	6월 30일까지 추후 신문 또는 인터넷을 통한 모집 공고 후 선발 예정	(사)모악문예 cafe.daum.net/abab5678 011-653-4211
	청소년문화 빅뱅캠프	전북의 맛, 멋, 소리 체험캠프	도내 문화동아리청소년 70명 일반청소년 및 다문화가정 30명	7월 20~22일 (2박3일) 송광수련장(전북완주군 소양면소재)	6월 20~30일 오후 4시 홈페이지, 방문접수, 팩스 접수	전라북도청소년 단체협의회 www.jbyouth.com 063-287-7930 전북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전북예총) www.jbyc.com 063-255-2611
전남	전국 중 · 고등학교 국악캠프	국악기 심화학습	전국 중고등학생 90명(국악 전공자)	7월 25~29일(4박5일) 국립남도국악원	6월 20일~7월 8일 예술(국악) 중 · 고등학교 참가자 : 학교별 공문 접수(신청서), 개인 참가자 : 이메일 접수(신청서)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www.ktpaf.org 02-580-3143
제주	내 몸 속 우리문화 DNA	다양한 주제와 영역의 문화자원 발굴, 스스로를 표현하고 그 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전국 중 · 고등학생 150명	7월 29일~8월 1일 제주금릉청소년수련원	6월 13~27일 오후 6시 홈페이지 접수	(사)제주도청소년교화연합회 : www.youthjeju.or.kr 064-725-0108 064-725-0108

고구려 멸망 과정 다룬 〈평양성〉

광개토대왕·을지문덕이 통탄할 '형제의 난'

올해 초 개봉한 이준익 감독의 영화 〈평양성〉은 2003년 나온 영화 〈황산벌〉의 속편격이다. 7세기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을 배경으로 한 이 두 영화 중 전작 〈황산벌〉은 백제를 무너뜨리는 이야기이고 최근에 만들어진 〈평양성〉은 고구려의 멸망을 다루고 있다.

일러스트ㆍ신웅호

〈평양성〉은 전작 〈황산벌〉의 재미요소를 많이 가져왔다. 전투하는 병사들이 각 지역 사투리를 걸쭉하게 쓰고 거시기(이문식 분)가 다시 등장해 산다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한 것은 전작의 설정과 주제의식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영화는 전작에 비해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려다 보니 산만하고 정리가 안 된 느낌이 다소 있지만, 할리우드 스펙터클과 다른 우리나라식 공성전의 소박함에서 재미를 느끼게 하고, 백제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고구려의 멸망과정을 코믹하지만 뼈아프게 그려냈다. 고구려는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삼국사기〉는 고구려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했다.

> 9월에 당나라 장수 이적이 평양성을 함락시켰다…(중략)…
> 평양성은 한 달 넘도록 포위되었다.
> 보장왕은 연남산과 수령 98명에게 백기를 들고
> 이적을 찾아 항복하게 하니, 이적은 이들을 예로써 대접하였다.
> 그러나 연남건은 오히려 성문을 닫고 항거하며
> 번번이 군사를 내어 싸웠으나 모두 패하였다.
> 남건은 군사를 중 신성에게 맡기니 신성은 소장 오사, 요묘와
> 더불어 몰래 이적에게 사람을 보내 내응할 것을 정하고
> 5일 만에 성문을 열어 놓았다. 이에 이적은 군사를 내어
> 성에 올라 북을 울리고 소리를 지르며 불을 놓아 태웠다.
> 남건은 손수 자살하려 했으나 죽지 못하고 포로가 되었다.
>
> 〈삼국사기〉 권 제22 보장왕 27년(668) 9월

645년 안시성 싸움에서 혼쭐난 당 태종은 다시는 고구려에 싸움을 걸지 말라는 유언까지 남겼다. 이런 고구려가 불과 20여 년 만에 멸망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연개소문의 세 아들들의 분열 때문이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오랫동안 권력을 쥐고 있던 연개소문이 665

년 죽자 고구려에는 권력의 공백이 생겼다. 연개소문의 뒤를 이어 대막리지에 오른 것은 큰아들 연남생이었다.

영화에서는 연개소문이 큰아들 남생(윤제문 분)을 싫어하고 둘째아들 남건(유승룡 분)을 총애하여 그에게 힘을 실어 준 것처럼 나왔지만, 실제로는 남생은 어렸을 때부터 준비된 후계자였고 연개소문이 죽자 바로 그 자리를 이어 고구려 제1의 권력자가 되었다.

그러나 남생은 자기 힘으로 만든 권력이 아니라 아버지가 물려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권력을 잡아채 왕까지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던 연개소문을 따라갈 만큼의 장악력은 부족했다.

영화 〈평양성〉에서는 연개소문의 사망부터 평양성 포위까지를 연속적인 사건으로 묶어 두었지만, 사실은 연개소문의 사망부터 고구려 멸망까지는 3년여의 시간이 있었다. 남생은 대막리지가 되자마자 남건과 남산에게 중앙정부의 일을 맡겨 두고 일인자로서의 카리스마를 확보하고, 잦은 전쟁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고구려의 지방을 순시했다.

형제 싸움에 외세 끌어들인 못난 장남 남생

그러나 이 순행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연개소문이 가졌던 강력한 힘이 세 아들들에게 나누어지면서 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남생은 지방을 돌면서 평양의 남건과 남산을 믿지 못했고 평양성에 남은 두 아우들도 형을 못 믿기는 마찬가지였다.

그 사이에 힘을 키워 보려는 사람들이 끼어들면서 형제들은 그만 등을 돌리고 말았다. 국내성에 있던 남생은 남건이 자신의 아들 헌충을 죽이고 토벌대를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삼국사기〉에서는 남생의 성품을 순후하고 예의가 있었으며, 윗사람을 대하여 말을 잘하고, 민첩하며 활 쏘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개인적인 장점은 동생들의 배신 앞에서 맥을 추지 못했다.

그는 동생들에 대한 분노로 눈이 멀어 나라의 앞일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자신의 보신을 위해 당나라를 끌어들이고 만다. 666년 6월 남생은 국내성과 자신의 세력권에 있던 6개 성 10만 호의 백성과 말갈, 거란의 무리들을 이끌고 당나라에 항복했다. 그리고 당나라로부터 평안도행군대총관겸지절안무대사라는 관직을 받았다.

그는 한때 자신이 다스렸던 나라 고구려의 멸망을 인도하는 앞잡이로 변신했다. 영화에서는 평양성 포위 때 남생이 성 안에 있었던 것처럼 나왔지만 남생은 처음부터 성 밖에서 평양성 공격에 큰 힘을 보태고 있었다.

남생의 배신으로 고구려가 궁지에 몰리자 연개소문의 둘째아들

조선DB

영화 〈평양성〉은 '형제의 난'으로 멸망한 고구려의 최후를 코믹하게 그려냈다.

남건과 셋째아들 남산의 사이도 벌어졌다. 남생을 내쫓고 남건이 대막리지가 되자 남산은 아버지 연개소문이 세운 허수아비 왕이긴 했지만, 보장왕과 손을 잡는다.

남산은 남건이 평양성에서 버티고 있을 때 보장왕과 의논해 남건 몰래 수령 98명을 데리고 먼저 당나라에 항복해 버렸다.

그에 대한 역사 기록은 그다지 많지 않다. 역사적 사실 속에서 그는 영화 속의 제법 멋있고 의기로운 남건의 모습과는 꽤나 다른 사람으로 비춰진다. 그는 형의 권력을 탐해 빼앗았지만 그 권력을 잘 다루지 못한 사람이었다.

나라를 말아먹고도 형제들은 호의호식

남건은 동생과 부하가 몰래 적에게 항복을 해도 이를 사전에 눈치채지 못할 만큼 둔하고,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항복을 꾀할 정도로 폭군이었는지도 모른다.

남건은 자결을 꾀했으나 이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그는 능력도 없으면서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 나라를 망친, 배신자 남생·남산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고구려에 해악을 끼친 인물이다.

너무 큰 나무 아래는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듯이 연개소문의 아들들은 너무 강력한 아버지 밑에서 욕심이라는 나쁜 점만 배우고 그 외의 장점들은 배우지 못한 삼형제들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분열과 급급한 잇속 차리기로 천년역사를 가진 동아시아의 대국 고구려를 한번에 털어먹고 모두 중국으로 갔다. 남생과 남산은 항복의 대가로 당나라의 관직을 얻었고 남건도 유배되었을 뿐 죽지는 않았다. G

글 · 김정미 (시나리오 작가)

금산에 오르면 곳곳에 솟아 있는 거대한 바위와 어우러진 남해의 절경을 볼 수 있다.

경남 남해

산과 바다가 한 곳에 다 있다 여름 피서지 이보다 좋을까?

더위가 일찍 찾아왔다. 푹푹 찌는 날씨가 한여름을 방불케 한다. 여느 해보다 조금 이른 피서를 계획하고 있다면 남해를 추천한다. 바다면 바다, 산이면 산, 가는 곳마다 볼거리가 많다. 아직까지는 그나마 찾는 이의 발길이 적어 한적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남해는 '일점선도'(一点仙島)라고 불렸다. '한 점 신선의 섬'이란 뜻이다. 이름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듯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또한 남해는 '보물섬'이라고도 불린다. 실제 보물이야 숨겨뒀겠냐만 그만큼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많다는 뜻이다.

남해를 여행해 보면 이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금산 보리암 같은 이름난 사찰이 있고, 다랑이 논으로 유명한 가천마을, 원시 어업의 형태를 가진 죽방렴도 흥미롭다. 독일마을처럼 이국적인 풍경을 가진 곳도 있고 요트, 카약 등 해양레포츠도 즐길 수 있다.

남해의 대표 여행지로는 금산 보리암을 꼽을 만하다. 양양 낙산사, 강화 보문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기도도량으로 알려진 곳이다. 암봉으로 이뤄진 금산의 9부 능선에 위치해 있는데, 보리암에서 바라보는 한려수도의 시원스런 경치가 가히 절경이다.

금산의 원래 이름은 보광산(普光山)이었으나 이성계가 이 산에 와서 기도를 한 뒤 왕위에 오르자, 산 전체를 비단으로 덮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산 이름을 금산(錦山)으로 바꿨다고 한다.

기도도량 금산 보리암에서 한려수도 감상

남해의 남면 가장 끄트머리에 자리잡은 다랑이마을은 '108계단'의 다랑이 논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산비탈을 따라 6백80여개의 논배미(논두렁으로 둘러싸인 논 하나하나의 구역)들이 이어진다.

선조들이 산간지역에서 벼농사를 짓기 위해 산비탈을 깎아 만든 것이 다랑이 논인데 밭 갈던 소도 한눈을 팔면 가파른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규모가 작다.

마을 어귀에는 암수바위라고 불리는 한 쌍의 바위가 있다. 모습은 남성과 여성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이를 못 낳는 여자가 이 바위를 보고 빌면 아들을 낳는다는 전설이 있다. 미륵바위라고도 부르는데, 왼쪽에 서 있는 바위가 숫미륵, 오른쪽에 누워있는 바위가 암미륵이다

암수바위에서 바다 쪽을 향해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다. 다랑이 마을이 유명해지면서 해안가를 산책할 수 있도록 길을 조성해 놓은 것이다. 길을 따라 내려가면 짙푸른 에메랄드빛 바다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

남해는 섬 전체가 빼어난 해안드라이브 코스지만 특히 삼동면 지족리에서 시작해 동남쪽 해안을 따라 내려가며 물건리에서 미조항에 이르는 코스가 많이 알려져 있다. '물미해안도로'라고 불리는 이 길은 급한 커브길이나 높은 고갯길이 없어 드라이브하기에 적당하다. 도로를 따라 이어지는 은점, 대지포, 노구, 항도, 초전 등의 갯마을은 그림처럼 아름답다.

보리암 해수관음상.

1 남해 포구여행의 백미 미조항. **2** 물건방조어부림은 바닷바람과 조류를 막고자 인공적으로 조성한 숲이다. **3** 가천다랑이마을. 조그만 논밭이라도 일구고자 했던 애환이 서려 있다.

'남해 물건리 미조항으로 가는 / 삼십리 물미해안, 허리에 낭창낭창 / 감기는 바람을 밀어내며 / 길은 잘 익은 햇살 따라 부드럽게 휘어지고 / 섬들은 수평선 끝을 잡아 / 그대 처음 만난 날처럼 팽팽하게 당기는데…'

(고두현 '물미해안에서 보내는 편지' 중)

드라이브의 시작점인 물건리에는 아주 유명한 곳이 있다. 물건방조어부림(勿巾防潮魚付林)이다. 이름 그대로 '고기를 부르는 숲'이다. 세찬 바닷바람을 막고 숲그늘로 물고기를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길이 1.5킬로미터, 너비 30미터의 이 숲에는 팽나무, 상수리나무, 참느릅나무 등 수령 3백년 이상 된 40여 종의 나무들이 해변을 따라 초승달 모양으로 길게 늘어서 있다.

수종들도 하나같이 귀한 것들이다. 이팝나무, 모감주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푸조나무 같은 장신들과 까마귀밥, 여름나무, 생강나무, 화살나무 등 단신 관목까지 1백70여 종, 1만여 그루가 심어져 있다.

천연기념물 150호. 숲 앞은 몽돌이 가득한 해변이다. 파도가 밀려왔다 갈 때마다 해변은 '자르륵' 하는 소리를 낸다. 해변 한 켠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어부의 모습이 평화롭기만 하다.

물건방조어부림 뒤편 산중턱에는 드라마 '환상의 커플'의 촬영지였던 독일마을이 자리한다. 독일인을 위한 마을이 아니라 1960년대 광산노동자와 간호사로 독일에 파견됐던 동포들이 고국에 돌아와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든 마을이다.

동포들이 직접 독일의 재료를 수입하여 전통 독일식으로 주택을 지었다. 실제로 동포들이 생활하고 있고 관광객을 위한 민박도 운영하고 있으니 하루쯤 묵으며 이국적인 정취를 즐겨 볼 만하다.

독일마을 가까이에 원예예술촌(house N garden)이 자리한다. 일본, 프랑스, 영국 등 20여개국의 정원을 모아놓은 곳이다.

고기를 부르는 숲, 천연기념물 방조어부림

예쁜 정원과 아기자기한 전원주택을 구경하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 연인들의 데이트코스로 인기가 높다. 남해의 특산물인 유자와 흑마늘을 이용해 수제 초콜릿 만들기 체험도 해 볼 수 있어 가족여행객이라면 한번쯤 들러도 좋을 듯하다.

미조항은 남해에서 가장 큰 포구다. 남항과 북항으로 나뉘는데 시끌벅적한 포구 풍경을 보려면 수협위판장이 있는 남항이, 회나 갈치조림 등 식사를 하려면 식당과 숙박업소가 몰려 있는 북항이

3

여·행·정·보

가는 길 대전에서 대전~통영 고속도로를 타고 간다. 진주 분기점에서 사천 방향 남해고속도로로 바꿔 탄 뒤 곧바로 사천나들목에서 나가 3번 국도를 따라 삼천포까지 직진한다. 삼천포와 창선대교를 건너고 창선교(지족 죽방렴)를 건넌 뒤 좌회전해 3번, 77번 해안도로를 따라간다. 남해고속도로 진교나들목에서 1024번 지방도로를 타거나, 하동나들목에서 19번 국도를 타면 남해대교로 이어진다. **남해요트학교**(070-7755-5278)는 물건방조어부림과 가깝고, **두모마을**(010-9856-1244)은 보리암과 가깝다.

잠잘 곳 **힐튼남해골프&스파리조트**(055-860-0555), **남해스포츠파크가족호텔**(055-862-8811), **남해가족관광호텔**(055-867-4710), **남해파라다이스콘도**(055-867-5111) 등을 추천한다. 남해읍 또는 해안도로를 따라 펜션과 모텔이 즐비하다. 남해군청 문화관광 홈페이지(tour.namhae.g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남면 선구리에 있는 **보물섬캠핑장**(055-864-7367)은 문을 연 지 한 달 됐다. 넓은 잔디광장에서 오토캠핑을 즐길 수 있다. **남해편백자연휴양림**(055-867-7881)은 하늘로 치솟은 편백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곳. 숲 속의 집, 숲 탐방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먹을 곳 남해의 대표 먹을거리는 멸치회와 쌈밥. 집산 포구인 미조항 주변에 많다. **우리식당**(055-867-0074), **단골식당**(055-867-4673), **은성쌈밥**(055-867-0012) 등이 유명하다. 미조항에 있는 **촌놈횟집**(055-867-4977)은 1박2일팀이 찾은 곳으로 유명하다.

낫다. 북항 초입에 위치한 미조중학교에 오르면 북항의 모습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다.

날씨가 좋으면 멀리 통영의 욕지도까지 시야에 들어온다. 남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죽방렴을 이용한 어업의 전통이 남아 있다.

죽방렴은 부채꼴 모양으로 나무말뚝을 쳐놓아 고기들이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한 '나무 그물'. 안쪽에 참나무 말뚝을 둥그렇게 박은 다음 촘촘하게 대나무 발을 쳐서 '불통'을 만든다. 불통 앞에는 들물 때 열렸다가 날물 때 닫히는 문짝을 달았다.

따라서 한번 들어간 고기는 빠져나갈 수 없다. 강에서 피라미를 잡을 때 쓰는 어항과 같은 원리다. 멸치잡이에 주로 쓰이는데 죽방렴으로 잡은 멸치는 비늘이 상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멸치보다 비싼 값을 받는다. 현재 20여개가 남아 있으며 초양대교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남해 여행의 또 다른 매력은 신나는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것. 물건리에 있는 남해군 요트학교는 영국왕립요트협회(RYA)의 과정을 한국 실정에 맞게 조정해 체험, 입문, 숙련 과정과 1급 지도자를 양성하는 스피네커·시맨십까지 모두 4개 과정 10단계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교육을 진행한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요트를 배울 수 있는데 교육과정 이수 후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료증을 발급해 준다.

요트, 시카약 등 해양스포츠의 천국

금산 남서쪽 자락에 자리한 상주면 양아리 두모마을은 70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로 드므개마을이라고도 불린다. 올해부터 시카약(sea-kayak)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여행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시카약은 30분~1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쉬운 레포츠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노를 젓다 보면 스트레스가 말끔히 사라지는 느낌이다.

두모마을에서 시카약을 타고 노도까지 갈 수도 있다. 20~30분 걸린다. 노도는 조선 중기의 소설가 서포 김만중이 3년간 유배생활 뒤 생을 마친 곳이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섬에 갇혀 고독한 나날을 보내던 그를 '노자묵자 할배'라 불렀다고 한다.

노도는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러 보낸 '서불'이라는 사람과 '5백명의 동남동녀' 일행이 금산으로 오를 때 처음 도착한 섬이라는 이야기도 전한다. 마을 어귀에는 솔숲도 조성돼 있는데 이곳에서 캠핑도 즐길 수 있다. G

글과 사진·최갑수 (시인·여행작가)

〈세시봉, 서태지와 트로트를 부르다〉

세대 갈등을 넘어 세대 이해로

이영미 지음
두리미디어 펴냄·1만1천5백원

세시봉 열풍이 불고 나서 나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공통점을 발견했다. 뜻밖에 청소년 나이의 자식들이 흥미롭게 보더라는 것이다.

요즘 신세대들은 아이돌에 적극적으로 반응해 온 터라 전혀 기대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진 셈이다. "그때 비로소 소통의 가능성을 엿보았다"는 이도 있었고 "진정한 것은 통하더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다 행복하고 즐거운 표정이었다. 한 시대를 상징하는 가요가 이처럼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고 추억과 기쁨을 나눠 주는구나 하고 새삼 느꼈다.

마침 가요평론가인 이영미씨가 〈세시봉, 서태지와 트로트를 부르다〉를 펴냈다. 이영미씨는 자신이 세시봉 세대임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트로트는 어딘가 시대에 뒤졌고 청승맞다 여겼고, 서태지에게서는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트로트든 서태지이든 다 한 세대를 상징하는 대중가요이고, 거기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더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단다. 성숙하고 너그러워진 세시봉 세대가 쓴 세대공감 가요론이라 보면 딱 맞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세시봉 광풍의 에너지를 중년들의 추억을 되살리는 것으로만 소진해 버리고 말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세대의 등장이 그러했듯이, 이 광풍을 통해서도 세대와 시대에 대해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대중가요가 단지 추억을 불러내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각 세대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살펴보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트로트' 하면 아무래도 낡은 세대의 감수성을 상징한다. 그런데 이영미씨는 트로트를 치밀하게 분석한 끝에 "당대의 고통을 당대의 방식으로 절절하게 노래한 매우 긴장감 넘치는 새로운 유행의 노래"였다고 말한다. 왜 안 그렇겠나. 그 시대 대중에게 사랑받은 음악이라면 전(前)시대와 확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감수성을 반영했을 터. 그러니 그때는 가장 세련되고 가장 신선한 음악일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오늘의 시각으로만 과거를 평가하는 데서 비롯하는 것이다.

세시봉으로 대표되는 통기타 세대에 대해서는 통념을 뒤집는 분석을 한다. 물론 "기타를 직접 반주하며 노래 부르는 포크가수는 하고 싶은 말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작가, 발언자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가요사에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은 높이 평가한다. 그럼에도 "그들이 만든 노래는 사랑타령이 중심인 상업적인 대중가요였을 뿐"이라고 일침을 놓는다.

'공동체'와 '개인의 발견' 모두 시대정신을 대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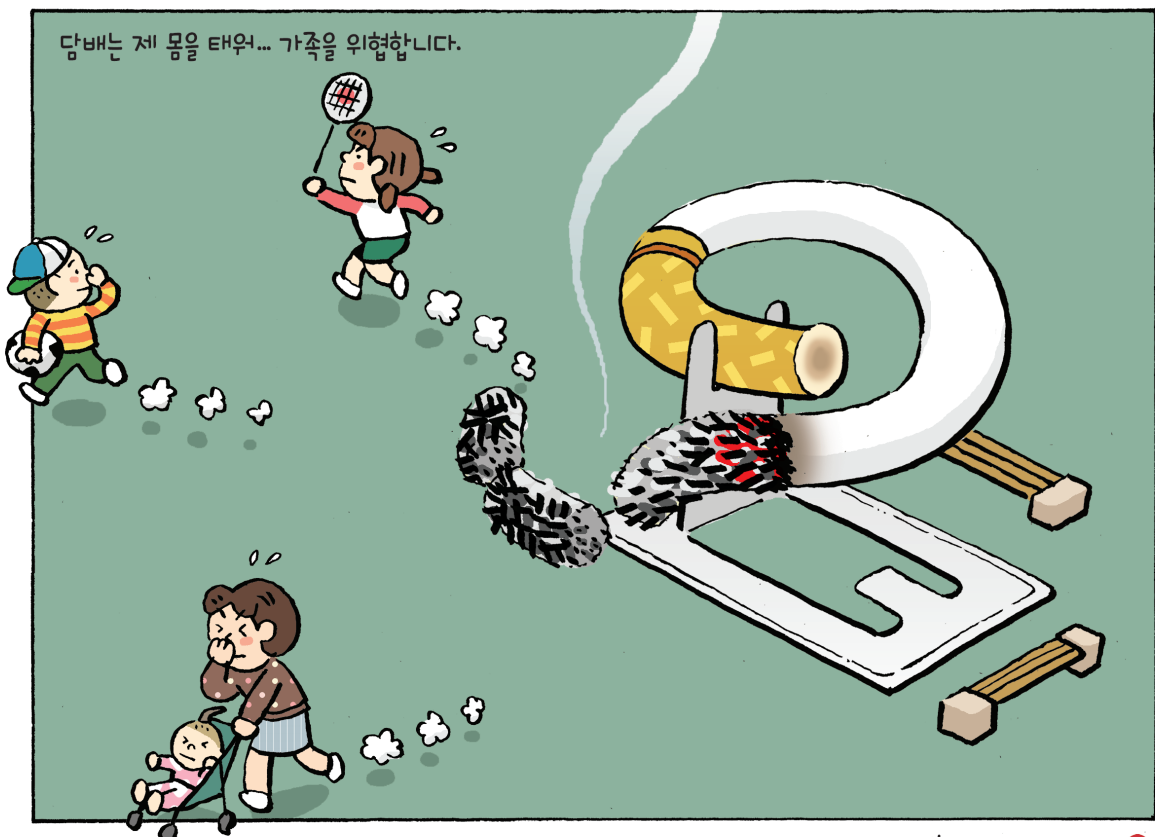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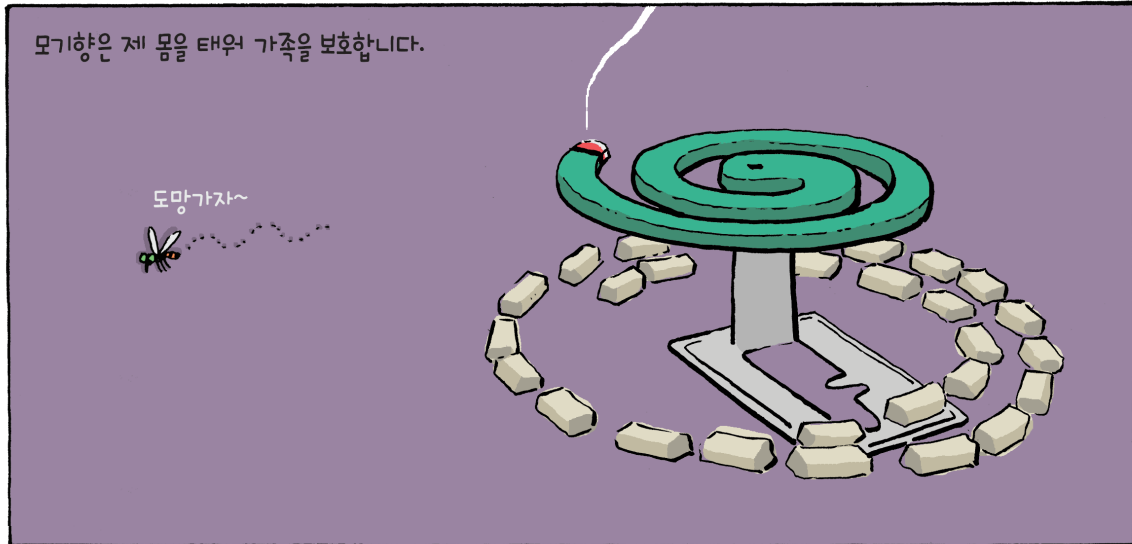
맞는 말이지 않은가. 통기타 세대가 저항성을 띠고 있다는 말은 정확한 분석이 아니다. 세시봉에서 어떤 저항성을 느낄 수 있는가. 김민기나 한대수 같은 소수에게서나 찾을 수 있다. 통기타 세대에게서 저항성을 찾는 것은 당시의 정치상황과 관련해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해하고자 한다면 아마도 그 시절의 노래들이 대체로 '순수함, 때묻지 않음, 오염되지 않음'을 뜻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러했을 듯싶다.

이영미씨는 서태지 세대의 특징으로 '개인의 발견'을 들었다. 여기서 말한 '개인'을 '욕망'이라는 말로 바꿔도 된다고 말한다. 이들 세대는 '돈과 육체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며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분석틀로 보면, 트로트 세대는 일제강점기, 전쟁 등을 겪으며 개인보다는 국가나 공동체의 가치를 더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특징이 있다. 세시봉 세대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을 추구했다 할 수 있다. 한 세대의 시대정신이 가요사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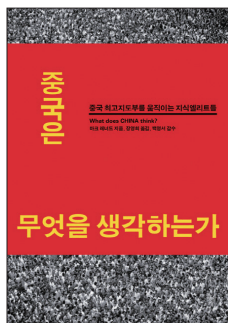
노래방에 가 보면 세대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다. 서로 좋아하는 노래가 너무 다른 데다, 다른 세대가 즐겨 부르는 노래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이 책을 읽고 이런 분위기가 깨졌으면 좋겠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안다면 너그러워질 수 있는 법이다. 정치적 관용을 노래방에서 실천해 나가면 어떨까 싶다. 세대 갈등을 넘어서 세대 이해라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터이니 말이다. G

글·이권우 (도서평론가)

싫다! 싫어!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공공장소에서 금연! 이제 상식입니다.

〈중국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중국 지식인들 '황하자본주의'로 선회

마크 레너드 지음
돌베개 펴냄·1만2천원

이 책은 굴기(崛起)하는 중국 지식엘리트들의 지적(知的) 동향을 경제·정치·국제문제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우리가 중국 지식인들의 논의를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야당도 독립적인 노조도 정치인들 사이의 공식적인 이견도 언론의 비판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지식인의 논쟁이 정치의 대용물이 된다."

경제에 관한 중국 내 담론과 관련해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자유주의 성향의 신우파(新右派)의 퇴조와 신좌파(新左派)의 대두다. 신좌파는 과도하게 수출에 의존하면서 내수(內需)는 취약한 중국경제의 치명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한 정부'와 '복지국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신좌파의 이러한 요구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내세우는 화해(和諧)사회, 녹색성장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심과 투자 등의 형태로 이미 정책화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을 저자는 '황하자본주의'라고 부른다.

독자 모델을 향하는 중화제국의 저력 느껴져

정치와 관련해서 소수의 공산당 엘리트에 의한 통치를 받아들이는 대신 정책결정 과정에서 대중과의 협의나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나가자는 '협의민주주의'(혹은 '협의형 독재정치') 주장이 눈길을 끈다.

대외정책과 관련해서 '화평굴기(和平崛起)'를 내세우면서 국제협력을 주장하는 정비젠(鄭必堅) 등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와 미국·일본·대만 등에 대한 적극적 억제전략을 요구하는 옌쉐퉁(閻學通) 등 '신공산주의자(네오콤; Neocom)'의 대립을 소개한다.

저자는 중국의 지식인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정치·경제·국제 시스템은 "민족국가가 주체적으로 경제를 통제하고, 정치를 관리하며, 대외정책 의제를 설정하는 독자적 공간의 재건을 목표로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 중국식 모델을 미국의 세계화론자 토마스 프리드먼이 말한 '평평한 세계'와 대비해 '성벽으로 나뉘는 세계(Walled World)'라고 표현한다. 이 책은 중국이 단시일 내에 급격한 성장을 이룬 졸부나 '경제동물(Economic Animal)'을 훨씬 넘어서는 존재임을 느끼게 해 준다. 역시 반만년 역사의 중화제국의 저력은 만만치 않다.

글·배진영 기자

새로 나온 책

명성황후 시해와 일본인

김문자 지음 | 휴머니스트 펴냄·2만원

청일전쟁사의 대가 나카쓰카 아키라(中塚明)의 제자인 저자가 일본 군부 자료를 분석해 최근 10년간 쓴 글을 엮은 책이다. '낭인패'들의 만행으로 알려진 을미사변이 사실은 일본 천황 직속의 대본영 육군 수뇌부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라는 것, 을미사변의 진짜 목적은 서울의 통신시설 확보에 있었다는 것 등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대한 새로운 주장들을 담았다.

한국인의 심리코드

황상민 지음 | 추수밭 펴냄·1만5천원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심리학자 황상민 연세대 교수가 지난 10년간 탐색한 한국인의 행동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심리코드'를 소개한 책이다. 저자는 남에게는 멋있게 보이려 하면서도 스스로는 자포자기하는 한국인의 이중적 정체성을 비판하고, 자신만의 진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존 비법을 제시한다.

나를 치유하는 산사여행

승한 지음·하지권 사진 | 불광출판사 펴냄·1만5천원

경기도 가평 대원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지도하고 있는 승한 스님이 서울 도봉산 석굴암을 시작으로 산청 지리산 법계사, 문경 희양산 봉암사, 순천 조계산 송광사 등 전국의 24개 산사를 순례한 기록을 담았다. 산사를 찾아가고, 새벽예불을 하고, 절을 하고, 참선을 하는 산사에서의 일거수일투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무애가(無碍歌)'와 '나무아미타불'의 기원, 대승사의 창건 설화 등 저자가 방문한 사찰의 역사와 이야기가 재미를 더한다. 하지권 작가의 사진 또한 산사기행의 흥취를 돋운다.

아인슈타인의 인생 방정식

글과 그림 · 최영순

당신이 더 빨리 가려 할수록 당신은 더 짧은 시간밖에 누리지 못한다. – 아인슈타인

코믹 발랄 영심이가 꺼낸 '8090'의 추억

뮤지컬 〈젊음의 행진〉

올 들어 가장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던 창작뮤지컬로는 지난 3월 공연됐던 〈광화문 연가〉를 꼽을 수 있다. 뮤지컬 관객으로 3천석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을 꽉 채우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작곡가 고(故) 이영훈씨의 노래로 만든 주크박스 뮤지컬 〈광화문 연가〉는 1980~1990년대 향수를 자극하며 공연기간 내내 흥행몰이를 했다.

'8090' 시절을 추억하는 뮤지컬의 족보를 따지자면 〈광화문 연가〉보다 실은 〈젊음의 행진〉이 먼저다. 2007년 초연돼 올해로 4회째 올리고 있으니 장수 뮤지컬이라 부를 수 있다. 현재 서울 삼성동 코엑스아티움에서 공연 중인 주크박스 뮤지컬 〈젊음의 행진〉 시즌 4. 쓸쓸한 덕수궁 뒷골목의 여운이 짙은 〈광화문 연가〉와는 달리 경쾌한 톤이다. 1980년대를 대표하는 쇼프로그램 〈젊음의 행진〉에 만화 〈영심이〉의 이야기를 섞었으니 콘셉트는 '코믹 발랄'할 수밖에!

핑크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33세 영심이는 콘서트 기획자다. '왕년의 스타' 가수 형부와 함께 기획한 콘서트 리허설 도중 대형 정전(停電)사고를 겪는다. 이때 '짠' 하고 나타난 이가 소싯적 친구 왕경태. "영심이 넌 내꺼야"라고 외치던 안경잡이 그 왕경태다. 그런데 웬걸. 라식수술로 매끈한 얼굴이 됐다. 이들의 만남과 함께 무대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고생 오영심은 꽃미남 교생선생에게 빠져 허우적댄다. 연필신(神)의 도움을 받아 전교 1등도 한다. 무대는 천방지축 여고생 영심이와 핑크색 콘서트 기획자 영심이를 오가며 드라마를 엮어 간다.

극을 이어 주는 매개물은 1980~1990년대 히트했던 대중가요다. 송골매·윤시내·박미경·나미·룰라·이문세·김건모·신승훈·부활·이승철·유재하·신해철. 이들이 불렀던 곡들이 무대를 휘젓는다. 공부합시다(윤시내), 날개 잃은 천사(룰라), 깊은 밤을 날아서(이문세), 보랏빛 향기(강수지), 마지막 콘서트(부활), 그녀를 만나는 곳 100미터 전(이상우)….

관객들은 잠시 아련한 추억 속으로 빠져든다. 이 작품의 최고 미덕은 바로 이 대목이다. 저마다 고단했지만 찬란했던 자신만의 시절이 눈에 박힌다. 이야기의 결말은 누구나 예상하듯 해피엔딩. 전기회사 직원 왕경태는 회사 사규까지 무시해 가며 일촉즉발의 위기에 빠진 영심이를 보란 듯이 구한다. 두 사람은 객석의 박수 속에 결실을 맺는다.

조선DB

〈젊음의 행진〉은 1980년대 대표적인 쇼프로그램 〈젊음의 행진〉과 만화 〈영심이〉의 이야기를 섞은 코믹 뮤지컬이다.

전체적인 느낌은 흥겹다. 하지만 심오한 뭔가를 추구하지 않는다 해도 가볍고 싱거운 느낌도 없진 않다. 〈광화문 연가〉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었다. 〈광화문 연가〉는 흥행엔 성공했지만 종잡을 수 없는 스토리로 작품성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

두 뮤지컬은 히트가요를 빌려와 '8090 추억'에 기댄, 2퍼센트 이상 부족한 작품이라는 게 공통적인 평이다. 다른 건 〈광화문 연가〉에선 리사 같은 뛰어난 가창력의 배우들이 헐거운 작품을 보충해 줬던 반면, 〈젊음의 행진〉은 흘러간 노래로만 버텨 내고 있다는 점이다. 〈젊음의 행진〉에선 연기와 가창력이 부족해 보이는 배우들도 여럿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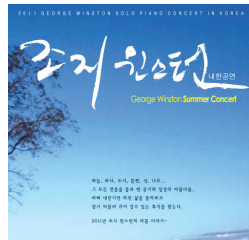
창작뮤지컬로 이만큼 온 것도 실은 대견하다. 하지만 좀 더 욕심을 냈으면 하는 바람도 든다. 추억으로만 승부를 내기엔 무대가 너무 넓으니까. G

글·최진숙 (파이낸셜뉴스 스포츠문화팀 기자)

일시 6월 26일까지 **장소** 코엑스아티움 현대아트홀

공연 **2011 지산밸리록페스티벌** 사흘간 멈추지 않는 록스피릿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 지산밸리록페스티벌이 다시 찾아온다. 지난해 MBC 〈무한도전〉에 방송되면서 더욱 유명해진 지산밸리록페스티벌은 도시의 전문 실내 공연장이 아닌 녹음이 우거진 야외에서 3일간 숙식하며 음악을 즐기는 축제로 젊음과 음악,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서서히 공개되고 있는 국내외 최고 뮤지션 라인업은 이 음악축제에 대한 기대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일시 7월 29~31일 **장소** 경기도 지산포레스트리조트 **관람료** 3일권 22만원, 1일권 11만원 **문의** 02-501-7888

공연 **조지 윈스턴 솔로 피아노 콘서트** 세계적인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George Winston)이 내한공연을 갖는다. 올해로 데뷔 40주년을 맞는 조지 윈스턴은 이번 공연에서 도심 속의 자연을 거니는 듯 한 편안함과 생명력을 가진 피아노 선율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연에서는 특히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감사(Thanksgiving)와 캐논변주곡, 보너스로 하모니카 연주와 하와이안 슬랙 키 기타연주를 들을 수 있다.

일시 6월 30일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R 9만원 S 7만원 A 5만원 B 3만원 **문의** 02-548-4480

전시 **어거스터스 거츠展** '회화의 연금술사'로 불리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어거스터스 거츠(Augutus Goertz)의 작품이 한국을 찾는다. 그의 작품은 장식적인 가치나 미적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움직임과 추상성을 유연하게 사용하여 자연 상태의 외적 현실에 대한 그의 고유한 해석을 드러낸다. 르네상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색채를 강조하는 서양 미술의 회화적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작가의 우주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엿볼 수 있다.

일시 6월 20일~7월 15일 **장소** ABLE FINE ART NY GALLERY SEOUL(서울 강남구 청담동) **문의** 02-546-3057

공연소식

공연	장소	날짜	문의
뮤지컬			
몬테크리스토백작	목포문화예술회관	7월 2~3일	061-270-8100
신의 아그네스	부산AN아트홀.Red	7월 17일까지	1566-5490
지킬앤하이드	샤롯데씨어터	8월 15일까지	1588-5212
아이 러브 유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	6월 25~26일	053-550-7116~8
연극			
산불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6월 5~26일	02-577-1987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까망소극장	6월 7~ 8월 28일	02-3672-8868
늙근 도둑 이야기	대학로아트원씨어터 3관 차이무 극장	6월 30일까지	02-762-0010
연극 리어왕	포항시립중앙아트홀 공연장	6월 26일까지	054-270-5483
콘서트			
Neo Traditional Jazz Trio 콘서트	대구수성아트피아 무학홀	6월 29일까지	053-744-5235
경기도국악당 기획공연 '명인을 만나다'	경기도국악당 흥겨운극장	12월 17일까지	031-289-6422
이은미 콘서트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7월 9일까지	031-8018-5200
클래식			
2011 아시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APO)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7월 30일	032-818-5665
서울모테트합창단 제82회 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6월 28일	02-579-7295
오페라 / 무용			
제2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토스카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7월 2~6일	02-3476-6224
국립오페라단 〈지크프리트의 검〉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7월 1~10일	02-586-5282

6월 셋째 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6월 5일~6월 11일

	곡명	가수
1	나를 잊지 말아요	허각
2	별빛달빛	시크릿
3	살다가 한번쯤	포맨
4	내 손을 잡아	아이유
5	Fiction	비스트
6	Hello Hello	FT아일랜드
7	Lonely	2NE1
8	사랑해	포맨
9	비가 오는 날엔	비스트
10	두근두근	써니힐

〈엑스맨 : 퍼스트 클래스〉 영웅의 두 얼굴
자비와 복수의 변주 "선악은 하나다"

〈엑스맨〉 시리즈의 결정판 〈엑스맨 : 퍼스트 클래스〉는 커다란 갈등 구조의 두 인물 에릭과 자비에 교수의 탄생을 다룬다. 자비에는 선을, 에릭은 악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서로 갈등하지만 이 둘이 연대할 수 있는 근거는 정상인인 인간과 뮤턴트(변종)인 자신들이 갈등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한해서이다.

하지만 자비에 교수와 마그니토 에릭은 서로 다른 길을 가면서 갈라선 이후 한 번도 연대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 둘의 인생관은 인간에 대한 태도에 있어 완전히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영화 〈엑스맨 : 퍼스트 클래스〉는 둘의 인생관을 완벽하게 해부한 작품으로서 SF 장르가 지닌 특유의 은유적 공식에 응답한다.

먼저 이 뮤턴트 이야기가 상징하는 바는 지구적 혹은 미국적 가치에 있어서 인종과 계급, 권력에 대한 은유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사회를 지배하는 특정 계급과 계층, 즉 파워엘리트를 의미한다. 그건 특히 정치적 시각에서 미국을 선도하는 특정 헤게모니 집단을 말한다.

반면 뮤턴트들은 이 체제에 있어 소수인종을 지칭하며 계급, 계층적으로도 하위집단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마치 유럽의 역사에서 집시들과 같이 뮤턴트들은 유랑하고, 질시와 모욕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정된 기존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흑색선전 때문이다.

이 영화에는 예수와 유다의 만남이 스며들어 있다. 부모를 살해한 나치 과학자를 찾아 복수의 일념으로 살아가는 에릭이 먼저 등장한다. 그런 그에게 박애를 실천하는 자비에 교수가 나타난다. 아이러니한 일은 에릭에게 자비를 가르쳐 줌으로써 오히려 악의 힘이 더욱 강해진 것이다.

〈엑스맨 : 퍼스트 클래스〉에선 뮤턴트들의 억울한 상황을 대변해 주는 두 명의 중요한 인물 자비에 교수와 에릭의 탄생을 서술한다. 영웅의 두 얼굴인 셈이다. 자비에 교수는 인간을 증오가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포용하며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했던 예수의 이상주의 이념을 실천하는 뮤턴트이고, 반면 에릭은 고통과 압박을 통해 형성된 복수심을 바탕으로 철저한 응징을 실천하는 현실주의적 투사상이다.

자비에 교수가 분노덩어리인 에릭을 만난 것은 성서 속에서 예수와 유다의 만남과도 같다. 당시 유다는 로마의 학정 아래에서 시달리던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뭉친 젤롯당원(열혈당원)이었다. 그는 예수를 유대민족의 구원을 이끌어줄 새로운 지도자로 여겼음이 분명하다.

파워엘리트인 인간에 핍박받는 뮤턴트 이야기

하지만 예수의 구원은 갈등과 대립을 복수로서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미는 희생적 자세였던 것이다. 그에 실망한 유다는 급기야 예수를 배반하기에 이른다.

영화의 전개상 먼저 에릭이 등장한다. 그는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나치 과학자를 찾아 일생 복수의 일념으로 살아간다. 뮤턴트 괴물의 역사는 곧 2차대전 속의 구체 현실 속에서 나치 전체주의에 희생된 유대인 소수민족의 고통으로 치환된다.

그런 그에게 박애를 실천하는 뮤턴트 자비에 교수가 나타난다. 아이러니한 일은 에릭에게 자비를 가르쳐 줌으로써 오히려 악의 힘이 더욱 강해졌다는 것이다.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다시 말하면 선악은 본래 하나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교훈이 아닐까.

글 · 정재형 (동국대 교수 · 영화평론가)

국민의 마음을 모아

통일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우리는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희망합니다.
온 민족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일된 한반도가 세계 속에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

제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국민과 함께 한 30년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의 시대, 통일 100년을 시작합니다.

제15기 출범회의
7. 1 (금) 잠실실내체육관

60년 만에 ...

죽어서 다시 만난 호국의 형제

이땅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던 1950년 9월
홀어머니의 눈물을 뒤로 한 채 한달 전 입대한 형님을 따라
나라를 지키겠다고 자원입대한 18세 어린 동생이 있었습니다.

형제는 낙동강, 서울수복작전에 이어 북진의 대열에 서서
평양탈환작전에 함께 참전했지만 서로의 소식도 모른 채
화랑무공훈장을 남기고 안타깝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두 형제가 전쟁터를 따라 이동한 거리는 무려 3,400여Km.
그리움과 고통의 대장정을 헤쳐나가면서도 결국 만나지 못한 채
60년이 지난 후에야 동생이 유해로 발굴되면서
현충원에 안장돼 있던 형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라사랑의 표상! 이들 형제의 호국정신은
우리들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 입니다.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
대한민국은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그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직접매장, 목격, 들은 사실)
-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시료 채취 참여 (전국보건소)
- 문의 1577-5625 (오! 6·25)